좋은 계획은 이른 아침
누구보다 먼저 시동을 걸게 합니다
돈을 벌게 합니다. 돈을 아껴쓰게 합니다
쓸때 쓰게 합니다
두려울 것이 없게 합니다

2010년의 좋은 계획, 하나금융그룹과 의논하세요

하나금융그룹

하나은행 | 하나대투증권 | 하나카드 | 하나캐피탈 | 하나HSBC생명보험 | 하나UBS자산운용 | 하나아이앤에스 | 하나금융연구소 | 하나은행(중국)유한공사 | PT Bank Hana

사단법인 인간개발연구원

# 좋은사람 좋은세상

Better People Better World

2010. 03+04

통권 **제98호** (비매품) **등록번호** 서울 마 03200 **발행일** 2010년 3월 1일
**발행인** 장만기 **편집** 정용달 **TEL** 02-2203-3500(代) **FAX** 02-2203-1974
**디자인** 하나로애드컴(www.hanaroad.com) **인쇄** (주)광진문화
**주소** 135-280 서울시 강남구 대치동 966-4 동성빌딩 202호(www.khdi.or.kr)

CoverStory 이심 대한노인회 회장
노인이 살기 좋은 나라
젊은 노인사회 이끌어 국가발전 원동력으로 삼을 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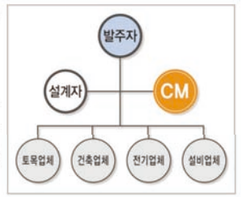
**머릿글** 김병일 한국국학진흥원 원장
**3·4월 프로그램**
**Issue&Seminar**
–김영길 한동대학교 총장
**창립35주년특집**
–창립기념 인간개발경영자연구회(권태신 국무총리실장)
**세상을 보는 눈** 박종하 박종하창의력연구소 대표
**기획특집 1** 기후변화포럼
**발행인편지**
**기획특집 2** 사람중심경영
**강사칼럼** 이보규 21세기사회발전연구소 소장
**정보비타민**
**회원&연구원소식**
**명사초청특강** 장대환 매일경제신문 회장
**지자체뉴스**
**정목일칼럼**

표지인물 **이심 회장** | 사진 **오경근** 원장

# 선진국형 건설방식 CM의 가치!
# 경제가 어려울수록 더욱 돋보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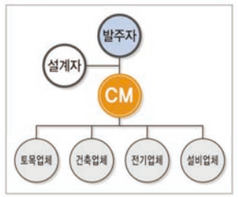
**건설 다이렉트 모델 – 사업관리형 CM**

- 기존 3단계의 건설유통구조를 **건축주와 전문건설업체가 직접계약**(직거래 방식)하는 2단계 유통구조로 축소하여 **사업비를 최대35%**(해외S프로젝트 실적)**까지 절감**하여 드립니다.
- Fast Track기법을 통해 설계와 시공을 동시에 진행하여 **사업기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하여 드립니다.




**건설 다이렉트 모델 – 책임형 CM**

- CM社가 건설사업의 기획, 설계 단계는 물론 시공까지 책임지고 **정해진 사업비와 사업기간내에 사업을 완료**하여 드립니다.
- 공사비 상승을 사전에 차단하고, **사업비를 절감**하여 건축주에게 돌려 드립니다.
- 모든 비용을 건축주에게 공개하며 **사업의 전 과정을 투명하게 관리**하여 드립니다.




**한미파슨스는 대형 건설프로젝트는 물론 주택, 소형 오피스, 근린상가, 클리닉빌딩 등 중소형 건설프로젝트에도 CM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MAESTRO 는 한미파슨스의 통합 서비스 브랜드입니다 문의 : 02-3429-6345 www.hanmiparsons.com HP HanmiParsons




# 글로벌 시대에 선비를 찾는 사람들

김병일 한국국학진흥원 원장 / 도산서원 선비문화수련원 이사장

● 최근 도산서원 부설 선비문화수련원에는 선비문화 체험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부쩍 늘어나고 있다. 비수기임에도 불구하고 올 1~2월 동안 벌써 9차례나 직장 연수팀이 다녀갔다. 이 가운데는 사회에 첫 발을 내딛는 KT와 IBK기업은행의 신입사원, 주택금융공사와 아세아부동산신탁의 전 임직원들이 포함되어 있다. 3월과 4월에도 이미 4~5개 팀씩 예약되어 있다. 작년 같은 기간 매월 1~2개 팀에 그친 것에 비하면 괄목할만한 증가 추세이다.

도산서원 선비문화수련원은 2001년, 바른 사람을 길러 도덕사회를 다시 세울 목적으로 출발하여 이듬해부터 연수교육을 실시했다. 처음에는 조기 인성교육의 필요성에 따라 청소년 학생과 교사를 주 대상으로 하다가 인근의 공직자와 군인으로 점차 대상을 넓혀갔다. 2002년 8차례 224명으로 늘어나기 시작해 매년 늘어나 2008년에는 54차례에 걸쳐 3,912명이 다녀갔다.

이러한 성과에 힘입어 2009년부터는 대상을 기업체, 금융기관 등 직장인으로 확대하기 시작했다. 올바른 인성을 갖춘 바른 사람 만들기 교육이 사회적으로 영향력이 크고 국민경제에 큰 역할을 하는 계층에게 더욱 중요하다는 생각에서였다. 그 결과, 작년 한 해 동안 35차례에 걸쳐 1,300여 명의 공사 기업체와 금융기관의 임직원, 조달청·특허청·기상청 등 중앙부처의 공직자들이 멀리 안동까지 다녀갔다. 첫해 성과로서는 기대 이상이었고, 이에 힘입어 지난해 전체 수련생 수도 6,242명으로 전해에 비해 60% 가량 늘어났다.

글로벌 시대에 엘리트, 지도층인 직장인들이 왜 옛 선비를 배우려고 하는가? 그것은 선비정신 가운데 오늘날 지도층에게 필요한 덕목이 있기 때문이다. 기업은 기본적으로 경영을 통해 이익을 추구하는 집단이지만 그 이익추구가 사회적 명분을 잃은 돈벌이로 전락한다면 지탄의 대상이 되고 결국은 사회에서 축출되기 마련이다. 기업의 윤리적인 경영과 구성원의 윤리의식이 중요한 이유이다.

옛 선비들은 '見利思義'라고 해서 눈앞에 이익(利)이 보일 때 그것을 취하는 것이 옳은 것(義)인지를 먼저 생각했다. 맹목적인 이익의 추구로 자신의 한 몸은 물론이고 조직 전체를 곤경에 빠뜨리고 국가와 사회에 폐를 끼치는 사례가 빈번한 요즈음, 옛 선비들의 의로운 정신은 더욱 필요하다. 선비정신을 통해 회계 부문에서의 청렴과 결백, 고객과의 관계에서의 이해와 배려를 배우고, 국가와 사회에 대한 충과 효를 실천할 수 있다면 정당한 이익의 추구를 통한 조직의 영속적인 발전을 도모할 수 있기 때문이다.

선비정신의 이러한 가치에도 불구하고 수련생들은 이곳에 올 때까지만 해도 별 기대 없이 왔다가 수련 과정에서 점차 생각이 달라진다. 수련생들은 2박3일의 과정 중 강의와 현장체험에서 많은 것을 배웠으며, 특히 퇴계 종택에서 큰절을 나누고 들은 16대 주손의 말씀과 육사문학관에서 나지막하게 들려주는 육사 따님의 말씀을 통해 겸손과 상대방에 대한 배려가 얼마나 중요한지 느꼈다고 말한다. 또한 강의실과 현장에서 보고 듣고 느낀 것을 자기 것으로 만드는 야간의 분임토의에 대해서는 한결같이 가장 유익한 시간이었다고 평가했다.

수료 소감을 들어보면, 한 인간이 공동체에서 살아가는데 필요한 덕목인 겸손, 배려, 공동체, 효도의 중요성을 절감했고, 사회에 나가면 배우고 깨달은 것을 실천하겠다는 각오를 이야기한다. 이러한 윤리의식과 공동체의식은 선비들이 꿈꾸던 다 같이 잘 사는 이상사회인 '대동사회'를 지향하는 것으로서, 조직이 요구하는 혁신의 가치와도 맞닿아 있다. 조직의 혁신은 공동의 이익을 위한 개개인의 변화에서 비롯되기 때문이다.

선비수련원에서는 수료 2~3개월 후 수련생들을 찾아가 수련의 성과를 점검하는 추수지도를 시행하고 있는데, 여기서 확인한 성과도 고무적이다. 작년 봄 수련 참여 신입사원을 만나 수련 이후의 일상에 대해 물어보았는데, 대부분의 사원들이 수료 시에 밝힌 대로 실천하고 있었다. 직장 내 상사나 선배들과의 관계에서 "올 신입사원은 다르다"는 칭찬을 받고 있었고, 고객들로부터도 좋은 평판을 받고 있었다. 또한 가정에서도 늦은 귀가 때에는 부모님께 늦어지는 이유와 귀가시간을 알리고, 시골에 계신 부모님께 먼저 전화를 드려 안부를 묻는 등 배운 대로 효를 실천하고 있었다.

또 세계적인 공항운영으로 국내외에 널리 알려진 인천국제공항공사의 팀장급 이상 전체 간부들이 다녀가기도 했는데, 3개월 후에 찾아갔더니 98%의 수료자가 만족스러운 연수였다며 반겨주기도 했다.

이러한 선비수련의 효과가 도산서원을 나서는 1년에 만 명이 채 못 되는 사람만으로 그친다는 것은 안타까운 일이다. 전국의 서원과 향교 등으로 선비수련을 통한 바른 사람 만들기가 확산되어야 우리 사회를 밝게 만들려는 염원이 실현될 것이다. 때마침 정부에서는 체계적인 선비문화체험을 위한 교재를 만든다고 하니 대단히 고무적인 일이다. 선비문화수련원에서는 현재 실시중인 선비수련에 진력하면서 이 교재 제작에도 참여하고 관련 단체와의 협력관계를 강화하는 등 선비정신을 확산하기 위한 노력에 매진할 생각이다. 이를 계기로 전통문화를 활용한 인성교육이 활성화되어 선진한국을 만드는 데 미력이나마 기여할 수 있다면 얼마나 다행이겠는가? KIM

● 김병일 원장

1945년 생으로 서울대 사학과를 거쳐 서울대 행정대학원 석사 및 미국 USC 행정대학원을 수료했다. 1971년 제10회 행정고등고시 합격 이후 재정경제원 국민생활국장, 국회예결특위 수석전문위원, 통계청장, 조달청장, 기획예산처 차관, 금융통화위원, 기획예산처 장관 등을 역임했다. 한국개발연구원 자문위원, 삼성고른기회장학재단 이사 등으로 활동했다. 현재 한국국학진흥원 원장 및 도산서원 선비문화수련원 이사장으로 재직 중이다.

# 인간개발경영자연구회 프로그램

**매주 목요일 07:00~09:00**

3월

## 국민통합과 사회지도층의 역할
### - 이 대통령의 교육계 비리와의 전쟁선포를 보면서

**제1635회 3월 4일(목) 롯데호텔(소공동) 2층 에메랄드룸**
**이원희**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회장

흔히 교육을 백년지대계(百年之大計)라고 한다. 그 안에서 국가를 이끌어가야 할 핵심 리더를 만들어내고, 국민성이나 국격을 키우는 에너지원이 되기 때문이다. 또한 우리는 태어나서 성인이 될 때까지 모든 사회제도 중에서 교육제도의 가장 큰 영향을 받으며 자라난다.

최근 어지러운 교육계 비리에 대해서 국민의 불만이 높고, 이명박 대통령도 비리척결에 대한 의지가 단호하다. 특히 가장 모범이 되어야 할 교육계가 비리의 온상이 되어가고 있는 것은 가슴아픈 일이다. 떨어진 공교육의 신뢰회복을 이루려면 교육계의 반성과 지도층의 새로운 시작이 필요한 시기이다.

비단 교육계에만 벌어지는 일은 아니다. 우리 안에 숨 쉬는 관행이라는 무서운 적을 없앨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 스스로 가치 있게 행동하는 리더들이 많아지면 자연스런 해답들이 나오고 자정작용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번 연구회에서는 교육현장에서 평생을 보내며 학생과 학부모들의 생각을 가까이에서 접하는 등 현장형 리더로서 교원단체들을 이끌어 온 이원희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회장을 초빙하여 대한민국의 희망이 될 교육계의 미래 청사진과 최근의 교육계 사태를 바라보며 국민통합과 사회지도층의 역할에 대해 고민해보는 시간을 가진다.

서울대 졸업 | 고려대 교육대학원 석사 | 삼선중, 서울사대부설중, 강일중, 경복고, 잠실고 교사 | 대통령자문 교육혁신위원회 전문위원 |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상담교사단 운영위원장 |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수석부회장, 혁신특위 위원장 | EBS 논술연구소 논술전문위원 | 교육부 논술심의위원회 부위원장 | 제5대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 위원

〈상훈〉
2007 자랑스런 서울대 사대인상, 제18회 대한민국무궁화대상(교육부문)

〈저서〉
학교에서 끝장내라, 교육이 희망이다

## 러시아 연해주가 갖는 정치·경제·역사적 의미

**제1636회 3월 11일(목) 롯데호텔(소공동) 3층 사파이어볼룸**
**이부영** 동북아평화연대 공동대표

러시아가 전통적인 자원왕국으로서 21세기 자원전쟁의 최대 격전지로 부상하고 있다. 그 중 시베리아 연해주는 지정학적 가치가 뛰어난 곳으로 미래의 식량창고이자 세계의 중심이 될 가능성까지 점쳐지고 있다.

러시아는 역사적으로도 우리와 인연이 깊다. 우리에게 일본이 과거이고 미국이 현재라면 러시아는 미래라 할 수 있다. 특히 연해주는 고려인들이 1860년대부터 굶주림과 일제의 탄압에 못 이겨 한반도를 등지고 이주한 곳이며, 이들은 다시 스탈린에 의해 중앙아시아 내륙 깊숙한 곳까지 강제이주 당하는 아픔을 겪었다. 이후 고려인들은 잡초처럼 질긴 생명력으로 한국의 문화와 전통을 이어가는 삶을 살고 있다.

지난해 4월 현대중공업은 러시아 연해주에 9917만㎡(3000만 평) 규모의 농장을 구입했다. 식량 확보 차원에서 추진한 프로젝트로 이곳에서 옥수수와 콩을 생산한다. 이는 식량안보와 녹색성장 차원에서도 의미 있는 시도로 우리 기업에게 시사해주는 바가 크다.

이번 연구회에서는 오랜 정치생활을 뒤로 하고 연해주 고려인들의 활동을 지원하는 동북아평화연대의 공동대표로 활동 중인 이부영 대표를 초빙하여 연해주가 갖는 정치, 경제, 역사적 의미를 살펴보고 향후 발전관계를 모색해보는 시간을 갖는다.

서울대 정치학과 졸업 | 동아일보 기자(해직) | 민주통일민중운동연합 사무처장 | 민주개혁정치모임 의장 | 제14, 15, 16대 국회의원 | 한나라당 원내총무, 부총재 | 통합민주당 부총재 | 열린우리당 상임운영위원, 의장 | 고려인문화센터건립추진 상임위원장 | 화해상생마당 운영위원 | 장준하기념사업회 명예회장

〈상훈〉
제3회 백봉신사상 신사의원상

〈저서〉
언론과 사회(공), 희망의 정치로 가는 길 外

## 선진국으로 가는 또 하나의 길
### - 공공부문혁신

**제1637회 3월 18일(목) 롯데호텔(소공동) 3층 사파이어볼룸**
**조창현** 정부혁신연구소 소장

무엇이 선진화인가? 아직까지 선진화라고 국제적으로 인정된 학문적 지표가 있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우리는 주로 서구와 미국으로 대표되는 이른바 선진국이 어떤 나라인지를 다 안다. 이런 나라들이 공유하고 있는 특징을 우리나라도 갖고 싶어 하는 것이 선진화이다. 경제적으로 여유롭고 정치적으로 안정되면서도 사회적 갈등을 원만히 해결하는 능력을 갖고, 사회적으로는 시장경제 체제하에서도 지나친 양극화로 인한 사회갈등을 최소화하는 사회 안정망을 잘 갖춘 나라. 뿐만 아니라 국민들의 잠재력과 창의력을 개발하여 예술과 학문을 발달시켜 문화수준이 높은 나라를 우리는 선진국이라고 부른다.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이 저절로 일어나는 것도 또는 개인이 혼자 뛰어서 되는 것도 아니다. 따라서 모든 나라가 다 선진국이 되는 것이 아니다. 무엇을 어떻게 해야 선진국에 진입할 수 있을까? 우선 정부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즉, 국민들과 국가가 무엇을 하고 싶어도 어떻게 해야 하며 또 잘할 수 있는지를 알아야 선진국이 될 수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정부가 똑똑하고 능력이 있어야 하며 국민을 만족시켜야 한다. 그러나 오늘날의 거의 모든 정부는 거대한 관료제 때문에 일이 더디고 비용이 너무 많이 든다. 공공부문의 혁신이 선행되어야 할 이유다.

이번 연구회에서는 우리나라 행정학계 권위자인 조창현 정부혁신연구소장을 초빙하여 어떻게 하면 공공부문의 혁신을 잘 할 수 있는지 알아보는 시간을 갖는다.

연세대 법학과 졸업 | 美 아메리칸대 행정학 석사 | 美 조지워싱턴대 행정학 박사 | 美 펜부룩주립대 정치학 교수 | 한양대 행정학 교수, 행정대학원장, 지방자치연구소장, 부총장, 석좌교수 | 대통령자문 정부혁신추진위원회 위원장 | 중앙인사위원회 위원장 | 방송위원회 위원장

〈상훈〉
내무부장관 표창장, 국민훈장동백장 外

〈저서〉
지방자치를 알면 21세기가 보인다, 한국지방자치의 쟁점과 과제 外

## 사기열전 인물로 본 인재경영

**제1638회 3월 25일(목) 한국경제신문사 18층 다산홀**
**김원중** 건양대 중국언어문화학과 교수

우리는 왜 인재를 중시하고 인재를 조직에 끌어들여야 하는가? 한 명의 인재가 조직을 위기로 만들 수도 있고 흥성하게 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진나라 이사는 조국 초나라를 버리고 진나라에 들어가 저 유명한 간축객서를 통해 인재경영의 중요성을 말했다. 천하를 경영한 이사는 자신을 내쫓으려는 진나라 토착세력의 방해를 일거에 잠재우고 객의 위치에서 확고한 위상을 구축한 주인의 위상까지 올라간다. 그가 올라간 것은 태산이 한 줌의 흙도 사양하지 않는 것처럼 역시 세류를 마다하지 않는다는 개방인재론이다.

건달 출신으로 제왕의 자리에 오른 유방은 어떤가? 별 볼일 없던 그에게 소하, 장량, 한신 같은 인재들이 있었기에 항우와의 싸움에서 이길 수 있었던 것이다. 인재를 얻는 자는 흥하고 잃는 자는 망하는 법이다.

소진과 장의 역시 마찬가지다. 소진이 6국의 재상을 역임하면서 진나라의 통일이 방해받았는데, 장의를 영입하면서 진나라의 통일은 불과 12여 년 만에 결판이 나고 만다. 결국 수많은 식객 중에서 한 두 명이 조직의 운명을 바꾼 것이다.

이번 연구회에서는 중국 고전번역의 최고 권위자인 건양대 김원중 교수를 초빙하여 사기에 나오는 인물들의 군상을 통해 21세기의 오늘, 과연 우리 조직에 어떤 인재상이 어울리는지 알아보는 시간을 갖는다.

충남대 중문과 대학원 졸업 | 성균관대 중문과 문학 박사 | 대만중앙영구원 중국문철연구소 방문학자 | 대만사범대학 국문연구소 방문교수

〈저서〉
중국문화사, 중국문화의 이해, 2천년의 강의, 허사대사전(편), 허사소사전(편), 정사 삼국지(역), 삼국우사(역), 사기열전(역), 사기본기(역), 한비자(역), 송시(역) 外

# 인간개발경영자연구회 프로그램

**매주 목요일 07:00~09:00**

4월

## 우리는 99%의 가능성이다

**제1639회 4월 1일(목) 롯데호텔(소공동) 2층 에메랄드룸**
**전신애** 前 미국 노동부 차관보

현모양처를 꿈꾸던 평범한 여대생이 사랑을 위해 해외로 떠났다. 동성동본 남자와 결혼하기 위해 아버지를 속이고 미국에 건너간 것이다. 이 여자는 훗날 한국 여성 최초의 미연방 최고위직에 올랐다. 전신애 전 미국 노동부 차관보의 드라마틱한 스토리다. 아시아 여성이 차관보가 된 것은 미 여성국 역사 81년 동안 처음 있는 일. 1950년 이래 가장 장수한 차관보이기도 했다. 소수민족 여성의 미 연방 정부 진출에 대한 미국 주류사회의 반응은 냉혹했다. 하지만 전신애 전 차관보는 편견의 벽을 넘어 성공을 이루어냈다.

토종 한국인이 낯선 미국 땅에서 고위 공직자로 성공할 수 있었던 비결은 무엇일까? 그녀는 "누구든 꿈의 높이만큼 올라서고, 무엇이든 열정의 크기만큼 얻을 수 있다"고 강조한다. 누구나 99%의 가능성을 이미 가지고 있으며, 나머지 1%를 채우는, 포기하지 않는 도전정신과 열정, 노력이 성공의 길을 열어준다고 말한다.

이번 연구회에서는 한국 여성 최초로 미연방 최고위직에 오른 전신애 전 차관보를 초빙하여 세계 경제의 중심이 아시아와 여성을 중심으로 빠르게 재편되고 있는 상황에서 그녀의 인생 성공 노하우를 들어보는 시간을 마련하였다.

**이화여대 영어영문학과 졸업 | 美 노스웨스턴대 교육학 석사 | 美 이중언어 교육연구소 | 美 일리노이 주지사 아시아계 미국인 자문위원장, 아시아계담당 특별보좌관 | 美 일리노이주 금융규제부 장관, 노동부 장관 | 美 노동부 여성국담당 차관보**

〈상훈〉
자랑스런 시카고 여성상, 자랑스런 이화인상, 동포사회발전후원재단 제1회 자랑스런 한국인상

〈저서〉
똑심 좋은 마산색시 미국장관 10년 해보니, 마산에서 링컨의 나라, 너는 99%의 가능성이다

## 녹색성장과 환경정책의 방향

**제1640회 4월 8일(목) 롯데호텔(소공동) 3층 사파이어볼룸**
**이만의** 환경부 장관

녹색성장(Green Growth)은 환경(Green)과 경제(Growth)가 통합하여 상생의 관계로 가는 패러다임이다. 과거에는 환경을 살리기 위해 경제를 좀 유보하거나 경제를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환경을 훼손해도 된다는 상충의 관계였다. 하지만 이제는 양자를 똑같이 살려서 녹색성장을 하면 환경이 좋아지고 경제도 성장하는 선순환 관계로 가는 미래지향적 사회를 추구하고 있다.

그러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환경도 경제도 살리는 전문지식과 기술, 또 전문지식과 기술을 가진 사람이 있어야 한다. 녹색성장은 1~2년을 보는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 60년을 내다보면서 설정해 놓은 비전이다. 또 세계 사회가 녹색성장을 2050년까지 목표로 해서 우리에게 여러 가지 요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적어도 2050년까지는 제일 중시하는 정책이고 세계적인 패러다임이 되었다. 저탄소 녹색성장은 우리도 잘 살고 세계가 함께 잘 사는 것에 기여할 수 있기 때문에 중요한 문제다.

이번 연구회에서는 이만의 환경부 장관을 초빙하여 전 세계적인 경기침체 타개책으로 환경과 신재생에너지 분야에서 성장동력을 창출하고, 친환경 사회기반 확충으로 일자리를 창출해 미래 국가경쟁력을 높이는 방안에 대해 들어보는 시간을 갖는다.

**조선대 영어영문학과 졸업 | 서울대 환경계획학 석사과정 | 연세대 행정학 석사 | 동국대 행정학 박사 수료 | 전남 여천시장, 목포시장 | 제주도 부지사 | 광주광역시 부시장 | 내무부 재난관리국장, 지방세제국장 | 행정자치부 자치지원국장, 인사국장 | 대통령비서실 공직기강비서관, 행정비서관 | 환경부 차관 | 환경관리공단 이사장 | 전남대, 단국대 객원교수**

〈상훈〉
새마을훈장 근면장, 홍조근정훈장, 황조근정훈장

## 사람의 마음을 경영합니다

**제1641회 4월 15일(목) 롯데호텔(소공동) 2층 에메랄드룸**
**황을문** (주)서린바이오사이언스 사장

기업의 가장 중요한 이슈는 바로 생존이다. 중소기업이 생존하기 위해서는 남들과 달라야 한다고 황을문 사장은 말한다.

"시키는 일만 하는 사람은 노예입니다. 발전이 없지요. 이런 사람은 눈총을 맞습니다. 눈으로 총을 맞는 것이지요. 남의 이야기를 하면 성장하지 못합니다. 백날 얘기해봐야 입만 아픕니다." '이 일은 내 일이다'라는 생각으로 일을 해야 개인도 발전하고 조직도 발전한다는 이야기다. 그리고 내 이야기, 네 이야기를 해야 개인이 발전할 수 있다는 이야기다.

무언가 다른 생각을 하는 사람, 그가 바로 황 사장이다. 책 읽는 CEO로 유명한 황 사장은 독서, 웃음, 칭찬이라는 3박자를 조직문화에 녹여 흑자가 나기 힘들다는 바이오 중소기업을 우량기업으로 키워냈다.

1984년 서린과학으로 시작한 서린바이오사이언스는 우수벤처기업 인증 및 벤처기업 대상, 서울벤처상 최우수상을 수상했으며, 제거할 수 있는 단백질고정화용 마이크로칩을 개발해 특허 출원했다. 이 과정에서 경영혁신형 중소기업으로 선정되었으며, 2009년 대비 영업이익 216.8%, 당기순이익 462.4%가 증가했다.

이번 연구회에서는 '남들과 다른' 중소기업을 일구어가고 있는 황을문 사장을 초빙하여, 중소기업 생존환경이 더욱 치열해지고 있는 가운데, 그가 가진 가치관과 경영관이 어떻게 중소기업 발전을 이끌어 가는지에 대해 공유하는 시간을 갖는다.

**한국바이오협회 부회장 | 코스닥협회 부회장 | 중소기업중앙회 벤처기업위원회 위원 | 삶의 예술가협회 회장 | 발레 新 백조의 호수 '마왕'역 출연**

〈상훈〉
2000 벤처기업대상, 은탑산업훈장, 중소기업을 빛낸 51인 선정, 서울특별시장상, 모범납세유공자표창, 피터드러커 소사이어티 우수혁신상, IMI 경영대상 지식경영부문 대상 外

## 21세기 대한민국의 미래
- 희망과 대안

**제1642회 4월 22일(목) 롯데호텔(소공동) 3층 사파이어볼룸**
**임현진** 서울대 사회과학대 학장

지난해 한국은 세계적인 경제위기를 돌파하는데 성공적이었고, 원전 건설 수주 등 큰 성과도 있었다. 올해는 G20 정상회의 개최국으로서 다른 어느 때보다 한국의 미래에 거는 희망이 크다. 그러나 세계 경제의 불안은 계속되고 있으며, 경기침체 이래 한국사회는 이념, 지역, 계층, 세대 간의 갈등과 혼란은 심화되고 있다.

위기의 산물인 사회과학은 중세와 근대를 거쳐 탈(脫)근대에 이르는 동안 변화의 와중에서 부단히 문제의식을 키워 현실사회에 대한 실천적 문제의식으로 원인을 규명하고 대안을 마련하는데 중요한 기여를 해왔다. 개도국의 멍에는 벗어났지만 반(半)중심부 처지에 있는 한국은 선진국들이 얻은 것과 잃은 것을 면밀히 검토해 미래상을 차근차근 만들어가야 한다.

또한 한국사회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현실을 넘어 이상을 추구하되 실현 가능한 대안을 찾는 냉철한 사회과학적 진단과 처방이 필요하다. 선진국이 되기 위해서는 국력 못지 않게 국격의 신장이 중요하다.

이번 연구회에서는 한국 사회발전을 경제성장, 소득 분배, 그리고 민주주의 측면에서 비교 검토해 온 인문사회학 분야의 국가석학인 임현진 서울대 교수를 초빙하여 산업화의 넓이와 민주화의 깊이를 닦아 나갈 수 있는 미래창발적 준비에 대해 이야기 나누는 시간을 갖는다.

**서울대 사회학과 졸업 | 서울대 사회학 석사 | 美 하버드대 사회학 박사 | 美 시카고대 동아시아 연구소 초빙교수 | 美 캘리포니아대 국제대학원 풀브라이트 교환교수 | 美 듀크대 사회학과 초빙교수 | 한국일보 논설위원 | 한국NGO학회 상임대표 | 한국사회학회 회장 | 서울대 기초교육원 원장 | 국제개발협력학회 회장 | 외교통상부 정책자문위원 | 한국정치사회학회 회장 | 서울대 사회학과 교수 겸 학장**

〈상훈〉
자유기업출판문화대상, 2007년도 인문사회분야 우수학자(국가석학) 外

## 남이 가지 않는 길을 간다

**1643회 4월 29일(목) 한국경제신문사 18층 다산홀**
**이석연** 법제처 처장

올해 G20 정상회의 개최를 통해 우리나라는 아시아 국가 중 리더로서의 한 단계 도약된 경제적 위상을 갖게 되었다. 이런 국격 향상은 단지 부의 창출 같은 경제적 성과 뿐 아니라, 법치 확립 같은 무형 자산 역시 큰 역할을 해왔다. 일설에 "법과 질서만 제대로 지켜도 성장률이 1% 올라간다"는 말이 있을 정도니 말이다.

법치 확립을 위해 노력하는 여러 기관 중 일반인들에겐 다소 생소한 법제처라는 기관이 있다. 정부 입법을 총괄·조정하고, 쉽고 완성도 높은 좋은 법을 만들며, 수요자 중심의 법령정보 제공과 명확한 법령해석을 통해 국민의 권리를 사전에 구제하는 등 핵심적 국가기능을 담당하는 곳이다.

이런 법제처에 헌법 마인드와 시민단체의 비판정신 등 소신을 가지고 가끔 정부를 곤혹스럽게 하는 사람이 있다. 이석연 법제처장이다. 그는 국가인권위원회 축소가 다루어진 국무회의에서 참석자 중 유일하게 반대의사를 표명했고, 검찰의 용산참사 수사기록 공개 거부를 비판하는 등 소신행보를 펼쳐왔다.

이번 연구회에는 이석연 법제처장을 초빙하여 '이법위인(以法爲人), 법은 사람을 위한 것이어야 한다'는 법제처의 역할과 함께 국가와 기업, 국민 모두가 한 단계 도약하기 위한 미래지향적인 헌법 담론을 들어보는 시간을 갖는다.

**전북대 법학과 졸업 | 전북대 법학 석사 | 서울대 법학 박사 | 제23회 행정고시, 제27회 사법시험 합격 |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 | 경실련 시민입법위원장, 사무총장 |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공동운영위원장 | 선진화국민회의 상임공동위원장 | 법무법인 서울 대표변호사 | 헌법포럼 상임대표 | 시민과 함께하는 변호사들 공동대표 | 동국대 겸임교수**

〈저서〉
헌법의 길 통합의 길, 침묵하는 보수로는 나라 못 지킨다, 헌법등대지기(수필집) 外

신년하례회 겸 제1627회 인간개발경영자연구회

# 글로벌 역량과 창의적 인성

**김영길** 한동대학교 총장

● 1월 7일(목) 롯데호텔(소공동) 3층 사파이어볼룸

한동대가 개교를 준비할 무렵 이미 159개의 대학이 있었다. 그래서 대학이 왜 또 필요하냐는 여론도 있었다. 하지만 나는 기존의 수많은 대학과 비슷한 160번째 대학을 만드는 것은 무의미하다고 생각했다. 글로벌무대에서 활약할 수 있는 인재양성을 목표로 '연구중심'의 대학이 아닌 '교육중심' 대학을 만들어야겠다고 생각했다.

## Why not change the world

한동대는 개교와 함께 3가지 방향을 잡았다.

첫째는 글로벌리제이션에 대비하는 인재양성이다. 둘째는 경제적 수단으로서의 인재(man power)를 키워내는 교육이 아니라 전인적 인재(humanization)를 키워내는 교육이다. 셋째는 미래지향적 인재양성이다. 기업은 이익추구가 목적이지만 교육은 미래에 쓰여질 인재를 키워내야 한다.

그래서 개교 때부터 'Why not change the world' '우리가 세상을 바꾸자'라는 슬로건을 내걸었다. 95학번이 입학할 당시 고등학생들은 한동대라는 이름도 몰랐다. 그러나 기회가 있을 때마다 "기존의 세상을 따라가려면 수도권 대학을 가고, 세상을 바꿀 비전이 있다면 한동대에 와라"라고 이야기했다. 그런데 기적이 일어났다. 입학경쟁률이 12.2:1에 이르렀고, 소위 서울 일류대학의 점수를 받은 학생들이 한동대의 비전만 믿고 몰려온 것이다.

한동대는 글로벌 인재양성을 위해 3가지 목표를 정했다. 첫째가 글로벌사회에서의 커뮤니케이션 능력을 키우기 위한 영어강의다. 그러나 꼭 영어만 필요한 것은 아니다. 영어는 기본적인 커뮤니케이션만 가능하면 된다. 앞으로는 아시아의 시대다. 특히 한국, 중국, 일본의 시대가 될 것이다. 그래서 시작한 것이 한자 2,000자 필수과목 지정이었다. 처음에는 학생들이 한자공부를 왜 해야 하는지 의문을 품기도 했지만 3년 정도 지나자 학생들 스스로 한자의 정자만 배워서는 중국어 공부가 되지 않는다고 하소연하기 시작했다. 그래서 지금은 졸업 조건으로 한자 2,000자 이수 또는 중국어회화 이수를 필수로 하고 있다.

둘째는 언어만 가지고 깊이있는 소통이 이루어질 수 없다고 판단해 학생들이 방학을 활용해 개도국으로 문화탐방과 봉사활동을 떠나는 아웃리치(out reach)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매년 10%의 학생들이 캄보디아, 아프리카, 몽골 등 개도국에 가서 고생도 많이 하고 오는데, 그 다음해에 또 나간다. 이것이 그 나라의 문화를 이해하는 과정이다.

셋째는 정직과 성실, 신뢰다. 사람간의 관계에서 중요한 것이 신뢰이다. 그래서 첫 신입생을 받자마자 과감하게 시작한 것이 '무감독 양심시험'이었다. 교수님들은 시험지만 내주고 바로 강의실에서 나간다. 그럼 가장 늦게 나오는 학생이 시험지를 모아서 제출한다. 성적 평가는 동료를 적으로 생각하게 만들 수 있는 상대평가가 아닌 절대평가로 하도록 했다.

## 한동대의 교육철학은 '장인 공(工)'

한동대의 교육철학을 한 글자로 표현하면 '장인 공(工)'이다. 기초, 기둥, 지붕의 형상을 하고 있는 공(工)자는 공학적으로 봐도 굉장히 튼튼한 구조다. 여기서 기초는 철로의 침목에 비유할 수 있는데, 수천t의 열차가 수백km로 달려도 견딜 수 있는 것이 바로 침목이다. 한동대가 생각한 침목은 정직, 성실, 팀워크 등을 키우는 인성, 기초교육이었다. 이 바탕 위에 지식을 쌓아올려야 한다고 생각했다.

대학은 학생들에게 폭넓은 지식을 길러줘야 한다. 대학의 학과는 학문적 분류일 뿐 실제 사회에서 발생하는 문제가 학과별로 일어나진 않는다. 그래서 한동대는 개교 때부터 복수전공을 필수로 해서 폭넓은 지식을 쌓도록 하고 있다. 또한 지식의 나눔을 위해 학생들에게 '공부해서 남 주자'라는 비전을 갖도록 하고 있다.

지식을 나누는 무대는 개발도상국들이다. 앞으로 개도국이 우리의 무대가 될 것이다. 개도국을 상대로 교육을 통해 인재를 기르고 지식을 나누어주는 것이 글로벌리제이션임을 학생들에게 강조한다. 인성과 정직, 성실의 바탕 위에서 폭넓은 지식을 쌓아 전 세계를 무대로 우리의 지식을 나누자는 것이다.

글로벌화되면서 선진국과 개도국간의 격차가 점점 벌어지고 있다. 이 갭을 한국이 앞장서 줄여줘야 한다. 한국전쟁의 폐허에서 시작해 OECD에 가입한 국가는 한국이 유일하다. 세계의 많은 개도국들이 미국 등 선진국이 아니라 한국을 모델로 삼고 있다. 또 하나 한국은 개도국을 도와야 할 도덕적 책무를 가지고 있다. 한국은 해방과 전쟁 이후 국제사회에서 가장 많은 원조를 받은 나라였다. 한국전쟁 당시에는 16개국이 참전해 우리를 위한 희생을 치렀다. 미국, 영국 등 선진국의 희생도 컸지만 필리핀, 콜롬비아, 이디오피아 등 개도국과 후진국의 희생도 만만치 않았다. 이들을 가장 효과적으로 도울 수 있는 길은 결코 돈만이 아니다.

한동대는 개교할 때부터 개도국에서 오는 학생들에게 100% 장학금을 주고 있다. 학교 재정이 많아서 주는 것은 아니다. 재정은 늘 어렵지만 그것이 한국이 졌던 빚을 갚는 길이라고 본다.

프랑스의 식민지였던 콩고에서 유학 온 학생이 한 명 있었는데, 아버지가 콩고의 고위 관리였다. 첫 유학생이라 직접 인터뷰를 했는데 자신의 꿈이 콩고 대통령이 되는 것이라고 했다. 그리고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한국으로 유학을 왔으며, 콩고가 배울 모델은 프랑스가 아니라 한국이기 때문이라고 했다.

99년도에 1회 졸업생이 나왔을 때 많은 학생들이 취직문제로 고민했었다. 이름도 없는 학교라 서류심사에서 모두 떨어진다는 것이다. 그러나 교육이라는 것은 지성과 정직성을 겸비한 정석을 찾아 원상태로 돌아가야 한다. 단기적으로 필요한 것만 교육한다는 것은 근시안적인 방법이다.

이와 관련한 한 사례가 있다. 한동대의 한 졸업생이 삼성에 경력사원으로 입사했다. 한 달간 훈련을 받고 부서배치 시험을 보는데, 이 성적에 따라서 부서 배정이

이루어졌다. 그런데 시험지를 배포한 감독관이 예고없이 자리를 비웠고, 출제된 문제는 너무나 어려워 도저히 풀 수 없었다. 그러자 시험장이 어수선해지면서 정답이 적혀있다는 쪽지가 나돌기 시작했다. 마침내 그 학생에게도 쪽지가 전달됐지만 학창 시절 무감독 시험을 통해 배운 게 정직, 성실이었던지라 결국 백지를 내고 나왔다고 한다. 하지만 시험 결과 놀랍게도 신입사원들이 가장 선호하던 부서에 배치되었다. 나중에 담당 과장의 '원래 그 문제는 정답이 없었다'는 말을 듣고서야 이유를 알게 됐다고 한다.

**지식 아닌 지혜의 교육으로 'only one' 인재를**

한국은 일본과 중국의 샌드위치 상태에서 어떻게 생존할 수 있을까? 이제는 창의가 아니면 생존이 불가능하다. 창의성은 없던 길을 만드는 것이지 기존의 길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다. 이제는 기존의 지식이 너무 빨리 못쓰게 되고, 맞느냐 틀리느냐 하는 선다형의 시대가 아니라 답이 없는 시대다.

21세기 교육에서 정답은 하나가 아니라 수 만 개다. 그 중에 어느 것을 선택하는가가 지혜다. 우리는 그동안 지식의 교육은 했지만 지혜의 교육을 하지 못했다. 지식을 활용하는 것이 지혜이다. 이제는 교육의 패러다임이 바뀌어야 한다.

대학 입학 때 학과 결정은 학생의 의지보다 교사와 부모의 권유에 따라 결정되는 경우가 많다. 그러다 보니 자기 적성에 맞지 않는 학과를 택하는 경우도 생긴다. 그래서 한동대는 신입생을 대상으로 무전공 무학과 제도를 시행했다. 입학해서 1년 동안 마음껏 탐색할 기회를 주는 것이다. 그리고 1년 뒤 하고 싶은 전공을 두 개 이상 택하게 한다. 그러다 보니 평균 졸업기간이 5년이다.

신입생의 소속감이 없어진다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담임교수제를 도입했다. 교수 1명이 학년과 전공에 상관없이 구성된 학생들에게 멘토링을 해준다. 학생들에게 신경을 많이 써야 하는 기초학부는 담당교수의 논문평가를 면제시켜 주기까지 했다.

이렇게 하자 개교 당시에는 없었던 산업디자인학부가 생겨났고, 각종 공모전에서 대상을 휩쓸기 시작했다. 실시시험을 보지 않고 입학했던 학생들이 흥미를 가지고 전공을 선택한 결과 기존의 미대생들과는 전혀 다른 시각의 창의성을 발휘한 것이다. 무전공 무학과 제도가 학생들의 자율성과 창의성을 자극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우리나라가 앞으로 살 길은 21세기 글로벌 역량을 가진 인재와 함께 넘버원보다는 온리원을 만들어야 한다. 기업도 다른 기업을 보고 따라가기만 하면 그 기업은 항상 2등밖에 할 수 없다. 한동대도 지난 15년간 재정적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한동인만의 새로운 가치관을 가지게 되었다. 정해진 틀에 갇히지 않는 인재도 양성하게 되었다. 마찬가지로 기업인 여러분도 2010년 새해에는 뉴스타트 하기를 바란다. KHDI

신년하례회 겸 제1627회 인간개발경영자연구회

조순 前 경제부총리 / 인간개발연구원 명예회장

# 2010년 신년인사

**한국의 문제는 고용의 문제다.**
**고용을 늘리기 위해서는 인력계획과**
**정부의 재정계획이 필요하다.**
**물론 이 방법으로 당장 고용을 잡을 수는 없지만**
**평소부터 준비해야 한다.**

우리나라는 작년 한 해 동안 어려움 속에서도 경제운영을 잘 했다. 부디 금년에도 그런 평가를 받고 또 그런 결과를 누릴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힘을 합쳐야할 것이다.

그동안 세계는 위기가 오면 주로 재정금융의 확대를 통해서 발등의 불을 꺼왔다. 그리고 지금까지 그 방법은 성공적이었다. 그러나 문제는 지금부터다. 세계경제가 당면한 화두는 출구전략이다. 출구전략은 시기가 있고, 하기가 엄청나게 어렵다. 발등의 불은 재정금융의 확대로 껐는데, 이걸 멈추면 경제는 상당한 타격을 입을 수 있다. 출구를 너무 빨리 해도, 또 너무 늦게 해도 더블딥이 올 수 있는 것이 세계의 현실이다.

출구를 통해 어두운 터널을 빠져나가는 것은 지금으로서는 좋은 모습이 아니다. 허허벌판에 먹을 것도 없고 쉴 곳도 없다. 이것이 미국의 경우 오바마 정권이 당면한 문제다. 오바마 정권은 미래에 대한 그림을 잘 못 그리는 것이 문제다. 그리고 그 그림을 국회나 국민들에게 설득할만한 준비가 되지 않았다.

1933년 미국의 대공황은 29년 증권시장의 몰락으로 시작되었다. 당시 후버 대통령은 '조금만 기다리면 번영이 올 것이다'라고 했다. 그럴 상황이 아니었지만 당시 정권은 그 이상의 세계를 그릴만한 능력이 없었던 것이다. 그나마 루즈벨트가 32년에 대통령에 당선되어 뉴딜을 시작하면서 미국은 새로운 출구를 할 수 있었다.

요점은 시간이 많이 걸린다는 것이다. 미국 전체로 보면 29년부터 33년까지가 준비 기간이었다. 지금도 상당한 준비기간이 걸릴 것이다. 때문에 우리도 조금은 느긋하게 미국과 유럽을 바라봐야 한다.

어차피 출구전략을 해야 하는 것이라면 용기가 필요하다. 지금 세계경제의 대세는 선진국에서 후진국으로 경제의 중점이 옮겨가고 있고, 서양에서 동양으로 대세가 기울고 있다.

전 세계의 공통된 문제는 글로벌리제이션을 어떻게 이끌어갈 것인지 하는 문제다. 쉬운 일은 아니지만 세계 어느 나라도 글로벌체제를 싫어하지는 않는다. 특히 중국은 글로벌체제의 수혜자로 이를 절실히 바라고 있다.

문제는 글로벌체제가 진행될수록 미국은 어려워진다. 그동안 국제수지적자, 재정수지적자 등을 통해 글로벌체제를 유지해왔는데, 이제 그 적자체제를 탈피해야 하는 모순이 생긴다. 이것을 해결하기 위한 고육지책이 중국에 대한 원화절상 요구였다. 중국이 요동도 하지 않자 최근에는 중국의 대미 수출품에 관세를 물리고 있다. 그러나 관세는 한 번 물리기 시작하면 멈출 수도 없고, 거기서 출구를 할 수도 없는 문제가 생긴다.

한국의 문제는 고용의 문제다. 이것은 전 세계가 겪는 문제이기도 하다. 그리고 인플레의 문제가 있다. 지금 세계의 경제성장은 고용없는 성장이다. 특히 우리나라가 그렇다. 중소기업과 고용이 일어나는 산업체제를 과거부터 마련했으면 좋은데, 이제 와서 갑자기 고용을 늘리려니까 방법이 없는 것이다.

고용을 늘리기 위해서는 인력계획과 정부의 재정계획이 필요하다. 물론 이 방법으로 당장 고용을 잡을 수는 없지만 평소부터 준비해야 한다. 우리는 무조건 대학에 진학해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이러한 생각을 바꾸고 지금부터라도 인력수급에 관한 프로그램을 마련해야 한다. 그리고 엄격한 재정계획을 만들어서 인플레를 막는 확실한 태도가 필요하다.

우리는 불확실한 세상에 살고 있다. 나 자신을 포함해 우리 스스로 확실한 태도를 가지고 어려움을 피하지 말고 정면으로 돌파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KHDI

# 창립35주년

인간개발연구원은 지난 2월 4일, 창립35주년을 맞아 300여명의 회원들이 모인 가운데, 창립기념 인간개발경영자연구회를 개최하였다. 각계의 축하 속에서 권태신 국무총리실장이 '선진일류국가로 가는 길'에 대해 주제발표를 했으며, 조순 前 경제부총리가 클로징 리마크를 맡았다. 장만기 본원 회장은 "연구원 35년의 역사는 회원들의 협력이 있었기에 가능했다"며, "앞으로도 회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한다"고 소감을 밝혔다.
- 편집자 주

35주년 기념 케익 커팅식

## 축사 1.

### 윤용로 기업은행 행장

인간개발연구원 창립35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린다. 1975년이면 우리나라가 경제개발에 온 힘을 가하고 있을 때였다. 이런 시기에 일찌감치 인간개발에 대한 혜안을 가지고 오늘까지 이런 모임을 이끌어오신 장만기 회장님 이하 관계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은행이나 기업 모두 과거에는 인사관리라고 하던 것을 지금은 모두 HR로 부르고 있다. Human Resources, 인적자원을 어떻게 개발하는가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일이 되었다. 지금 우리나라 금융이 세계적으로 어떻게 더 커져나갈 것인가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데, 우리나라 은행에는 작은 문제도 있고, 시스템의 문제도 있지만 역시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람이다.

그런 측면에서 금융산업이 제조업만큼 훌륭한 인재들을 많이 못 키웠다. 기업은행도 인재에 대한 투자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해서 젊은 사람들을 해외에 보내서 공부도 시키고, 인간개발연구원 조찬세미나에 보내서 배우게 하는 노력을 하고 있다. 사람에 대한 투자가 이루어진다면 우리나라 금융산업도 제조업처럼 세계적인 금융산업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몇 년째 마의 2만 불 시대에서 더 성장하지 못하고 있는 것도 인적자원의 문제 때문이다. 그런 의미에서 35주년을 맞은 인간개발연구원이 해야 할 일들이 많다. 우리 모든 회원을 대표해서 진심으로 35주년을 축하드리고, 앞으로 더 큰 발전, 50년, 100년의 발전을 기대하겠다.

### 임덕규 월간 디플로머시 회장

인간개발연구원은 한국 경제발전의 원동력 역할을 해왔다. 그리고 장만기 회장은 한국 조찬회의 대부로 불릴만한 인물이다. 1975년 당시 사회분위기는 "대학을 졸업하면 더 이상 공부할 필요없다"라고 생각하던 때였다. 그런데 30대 청년 장만기 회장은 국가발전과 기업성장을 위해서는, 특히 각계의 지도자들과 경영자들이 연구를 계속해야한다는 확고한 신념으로 인간개발연구원을 설립했다.

나도 1975년 3~4월경부터 참가하기 시작해 1631회 중 1400~1500회 정도는 참석했으니까 개근은 못했어도 정근은 한 것 같다. 그동안 다녀간 연사들도 경제인으로는 정주영 회장, 김우중 회장 등 당대의 최고경영자들이었다. 정치인으로는 노태우 전 대통령, 김영삼 전 대통령, 김대중 전 대통령, 이명박 대통령 등 여야를 초월하는 최고의 정치지도자들이었다.

지금 대한민국은 경제규모가 세계10위권에 도달해 있을 만큼 위상이 높다. 전 세계 200여 나라 중 약 170여 개 나라들은 "우리도 한국처럼 잘 살 수 있다. 열심히 한국을 배우자!"라고 외치면서 열심히 따라오고 있다.

이렇듯 위대한 대한민국이 되기까지는 이 자리에 계시는 여러분의 노력과 특히 인간개발연구원의 역할이 대단히 크게 기여했다. 다시 한 번 인간개발연구원 창립35주년을 축하드리고, 우리 대한민국과 더불어 꾸준한 발전을 기원한다.

## 축사 2.

창립35주년 기념 제1631회 인간개발경영자연구회

# "선진일류국가로 가는 길"

**권태신** 국무총리실장

●2월 4일(목) 롯데호텔(소공동) 2층 크리스탈볼룸

## 주제발표

한국이 OECD에 가입은 했지만 아직 여러 측면에서 선진국은 아니다. 그러나 한국은 그동안 정말 위대한 업적을 이루어왔다. 특히 우리는 위기가 왔을 때 대응을 잘했다. 그러나 문제는 한국은 민족자원도 없고, 부존자원도 없고, 국토도 작다.

그렇다면 우리는 앞으로 뭘 해서 먹고 살 것인가? 과학기술, 첨단산업, IT 융합 복합 분야에서 특화를 해야 한다. 그리고 오늘의 인간개발연구원이 해온 것처럼 사람들을 교육하는 교육산업, 전시컨벤션산업, 호텔산업, 의료산업, 법률산업 등을 해야 고급일자리를 만들 수 있다. 소위 말하는 틈새시장을 찾아야 한다.

### 놀라운 발전 이뤘지만 완전한 선진국 못 돼

우리나라가 지금은 어렵지만 국운이 계속 따르고 있다. 우리나라 역사상 처음으로 G20 정상회의 개최를 앞두고 있다. 그리고 68년 미국에서 원자력발전소를 처음 수입한 이후 지금은 세계에 한국의 원전을 수출하고 있다. 앞으로 몇 십 년 동안 300~400기 이상의 원전 수주가 나올 것이고, 그 중 상당부분은 우리가 차지할 수 있을 것이다. 이것만 봐도 우리나라에 국운이 있다는 것이다.

국운이 따르고 있긴 하지만 조금만 방심하면 추락의 길로 들어설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한다. 선진국은 로봇, 원전, 반도체 등의 하드웨어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다. 선진국은 국민들의 마인드, 태도, 분쟁이나 갈등의 해결방법, 법치주의 확립 등 소프트웨어에서 비롯되는 것이다. 이것이 선행되지 않으면 우리는 절대 선진국이 될 수 없다.

지난 87년 이후 여러 측면에서 우리나라는 민주주의가 확립되었다. 다만, 민주주의는 법치주의에 기반을 두고 그에 대한 책임이 따른다. 내 주장만 불법으로 폭력으로 주장해서 되는 사회가 아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는 상당 기간 이념대립에 빠져있었다. 좌우, 빈부, 계급, 계층, 지역간의 이념대립이 심했다. 이념대립에서 빠져 나오지 못하다보니까 2만불 수준에서 계속 맴돌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분열이 계속되어서는 발전을 이룰 수 없다.

### 잘못된 정책은 헌법이라도 고쳐야

그런 관점에서 세종시 문제를 말씀드리겠다. 세종시는 치명적인 두 가지 문제가 있다. 첫째는 엄청난 국정 비효율을 초래한다는 것이다. 호주나 캐나다, 브라질 등 큰 나라들은 입법, 사법, 행정을 모두 옮긴 경험이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처럼 작은 나라에서 수도를 통째로 이전한다는 것, 9부 2처 2청, 그것도 총리실까지 포함해서 150km 떨어진 곳으로 옮긴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

조금 불편하면 된다고 하는데, 신문사의 예를 보자. 신문사 사장과 출판국, 공보국 등은 서울에 있고, 정치부 경제부 사회부 편집국 등은 150km 떨어진 곳으로 가라고 하면 그 신문사가 다른 신문사와의 경쟁에서 살아남을 수 있을까.

두 번째는 세종시 문제가 지난 2002년 선거과정에서 나와서 2003년에 하려고 하다가 2004년에 탄핵이 되니까 그 역풍으로 국회에서 여당이 많이 당선되었다. 그 길로 수도이전법을 통과시켰다. 그러다가 2004년 10월 헌법재판소에서 '수도라는 것은 헌법 안에는 없지만 불문법적인 헌법 내용이다. 법률로서 옮길 수 없다'라고 위헌판결을 내렸다. 그리고 두 달 만인 12월에 편법으로 내놓은 아이디어가 '대통령과 국회, 사법부는 서울에 있고, 총리와 9부 2처 2청은 내려 보내자'는 것이었다. 이걸 하기 위해서 국민 세금을 포함한 22조5천억을 쓰도록 되어 있다.

원안을 만들면서 140회의 공청회를 했다. 공청회 내용은 수도를 이전할 것인가 말 것인가에서 어느 부처를 이전할 것인가로 바뀌었다. 그 과정에서 이 도시를 어떻게 잘 만들 것인가에 대한 회의는 전혀 하지 않았다. 그 결과 세종시는 모양은 그럴 듯하지만 여기에 들어올 수 있는 대학이나 기업, 연구소에 주는 조세감면이나

저렴한 가격의 토지제공 등 인센티브가 전혀 없다.
그리고 워낙 관대하게 땅을 수용해주다 보니까 남산보다 큰 산과 늪지가 도시 한 가운데 있다. 전체 2,200만 평을 5조5천억을 주고 샀다. 그래서 산과 늪, 강, 도시공공용지, 도로, 하수도 등을 빼고 팔 수 있는 토지 가격이 평당 227만 원이다. 227만 원에 조세감면도 없고, 다른 우대제도도 없는데 어떤 기업이 오겠는가.
그리고 당시 인구 50만 도시를 만들라는 지시가 있었다. 50만 명을 채우기 위해서는 한 가구 2.5명 기준으로 아파트 20만 호가 필요하다. 공원용지 53%, 공공용지 19%를 뺀 나머지는 전부 아파트다. 그러다 보니 산업단지, 상용용지 등 남는 자족용지가 6.7%밖에 되지 않는다. 기업이 들어갈 수 있는 땅은 1.1% 20만 평에 불과하다. 이것이 원안이다.
따라서 수도이전이라는 엄청난 낭비와 함께 국민 세금 22조5천억을 쓰면서 공무원 1만 여명이 내려가는 것밖에 없기 때문에 본원적인 일자리가 5~8만 명밖에 안 되는 기형도시를 막자는 뜻으로 수정안을 시작하게 되었다.
한편에서는 "아무리 잘못된 일이라도 신뢰는 지켜야 한다. 법률은 지켜야 한다"라고 말씀하신다. 그러나 신뢰라는 것은 나와 상대방 모두에게 올바른 길, 도움이 되는 올바른 결과가 나온다고 예측 가능할 때 신뢰를 지키는 것이지 상황이 바뀌고 내용이 틀렸는데도 무조건 신뢰라고 몰고 가서는 안 된다.
잘못된 정책은 헌법이라도 필요하다면 국민합의로 고쳐야 한다. 그 예로 전북 새만금이 1억2천만 평이다. 원래 전부 농지로 만들려고 하다가 지금은 농지를 30%로 바꾸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우리 세대만 살 생각을 하지 말고, 선배들이 살아온 60~70년대에서 일자리를 만들어서 지금 젊은이들이 먹고 살 듯이 우리가 다음 세대, 20~30년 뒤의 사람들을 위한 생각도 하자는 것이다.
지금 세종시가 원안대로 간다는 것은 국가 백년대계를 위해서 엄청난 낭비다. 이것을 주장함으로써 현 정부에 정치적 이득이 있을 리 없다. 오히려 비난만 받는다. 진정한 지도자는 국민을 어렵게 하는 것을 신뢰라고 강변하지 않고, 진솔한 반성과 사과로 잘못을 바로잡는 것이 용기다.

### 세종시 수정안 국가 백년대계 위한 일

그럼 세종시 수정안은 어떤 내용인가. 도시의 기본 틀은 그대로 두고, 기업이나 연구소, 병원 등이 들어올 수 있는 토지를 현재의 6.7%에서 20.7%로 올렸다. 그리고 외곽순환도로나 연계 교통도로가 2030년으로 계획되어있던 것을 2015년까지 마무리하는 것으로 변경했다. 그렇게 해서 25만 명의 고용창출을 하겠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번 임기 중에 상당부분 진행시켜서 충청도민들이 불안해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것이 개정안의 주요 내용이다.
많은 분들이 국가균형발전, 수도권과밀해소는 포기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을 하신다. 절대 그렇지 않다. 세종시 원안으로는 잘해야 인구 5만, 10만 도시이고, 그것도 공무원 1만 여 명이 옮겨가는 것이기 때문에 이 도시로 인해 수도권 인구밀도가 낮아지고, 국토균형발전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다.
그리고 원형지공급이 있다. 이를 두고 기업에 특혜를 주는 것 아니냐는 말씀도 하신다. 227만 원이라는 것은 공원 등이 많아서 전체에서 팔 수 있는 땅을, 땅 산 돈 5조5천억으로 나눌 때의 금액이다. 이제는 자족용지를 높이고, 팔 수 있는 땅을 늘리고, 토지공사가 개발하는 비용을 줄이고, 단지를 일시적으로 파는 게 아니라 단계적으로 판다. 그렇게 되면 상업용지, 주택용지는 제대로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특혜가 아니다.
인근 지역의 개발된 땅이 50~80만 원이다. 그래서 여기에 기업이 들어오게 하려면 80만원에서 개발비용 38만원을 뺀 40만 원 정도가 적당하다고 해서 들어올 기업이 있으면 들어오라고 한 것이다.
어떻게 우리나라가 성장하고, 어떻게 일자리가 만들어지느냐 하는 것은 여기 계신 기업인들의 손에 달려있다. 기업이 이 나라 수출의 근원이고, 납세의 근원이다. 따라서 기업을 잘돼야 일자리가 창출된다. 기업들에게 아무런 메리트가 없다면 기업은 땅값이 8만 원 밖에 안 하는 중국으로 간다는 얘기다. 그럼 국내 일자리도 없어진다.
세종시 수정안은 어떤 정치적 목적이나 이해관계, 득을 보자는 것이 절대 아니다. 결국 세종시 문제가 잘 풀리느냐 안 풀리느냐 하는 것은 국민 여러분의 의견과 국회에서 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버스기사로서 원래 준 지도대로 가다 보니까 낭떠러지가 보여서 '이거 위험하다, 안전한 길로 가시는 게 어떻겠냐'라고 국민 여러분과 국회에 묻는 입장이다. 그런 측면에서 이해해주시길 바란다.KHM

**오명** 건국대 총장

강연후담 1.

# 발전의 역사 위에서 선진국의 역사 새롭게 써야

많은 개발도상국가들이 미국, 일본을 비롯한 선진국을 놔두고 유독 한국에 관심을 갖는 이유는 30년 전에는 자기네보다 못했는데, 지금은 자기네보다 더 발전한 것을 보고 자기네도 할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의미에서 한국과의 협력을 기대하고 있는 것 같다.
한국은 정말 놀랄만한 발전을 했다. 아시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였고, 굶어죽는 사람이 있었고, 북한보다도 못 살았다. 그런데 지난 50년 동안에 국민소득이 200배 늘었고, GDP는 무려 3000배가 늘었다. 2차대전 이후에 독립한 나라 중에서 OECD에 가입한 곳도 우리밖에 없다. 원조를 받던 나라에서 원조를 주는 나라로 발전했다. 이러한 위대한 발전을 이룬 주역은 바로 여러분들이다.
이제는 우리는 선진국으로 발전해야 한다.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문제가 갈등의 문제다. 갈등해소를 위해서 GDP의 37%가 없어지고 있다. 개발도상국가는 빨리 발전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선진국은 모든 국민을 편안하게 해주고 행복하게 해주는 나라다. 개발도상국가는 발전을 위해서 옛날 것을 모두 부정하고 새로운 것을 가지고 계속 발전해나가려고 한다. 그러나 선진국은 선조들이 이룬 문화를 존중하고 그 바탕위에서 조금씩 발전해나간다.
이제는 계획을 세울 때도 10년, 20년 걸려서 계획하고, 그것을 집행해나가는 것도 20년, 30년에 걸쳐서 집행하는 방향으로 바뀌어야 한다. 최근에 나오는 많은 갈등들도 당대에 뭘 만들려고 하고, 그러다 사람이 바뀌면 또 새로운 방향으로 바뀌다 보니까 생기는 갈등들이다.
앞으로 나라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지금까지 쌓아왔던 모든 것을 존중해야 한다. 우리나라가 이렇게 발전해왔는데, 과거를 부정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 지금까지 발전의 주역이었던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고, 거기에 자기 능력을 보태서 좀 더 발전하도록 만들어놓는다는 자세로 국정을 이끌어나간다면 지속적인 발전을 이룰 수 있을 것이다.
갈등을 해소하는 나라, 모든 국민이 평화롭고 편안하게 지낼 수 있는 나라, 그리고 조금씩 발전하면서 오랜 기간을 두고 계획하고, 그 계획을 오랜 시간에 걸쳐서 조금씩 달성해나가는 그런 나라로 발전했으면 좋겠다.KHM

**1** 강연 후 이어진 토론시간
**2** 창립35주년 기념식에 참석한 귀빈들

강연후담 2.

**윤병철** 사회복지공동모금회 회장

# 사회지도층이 큰 물결 만들어가야

선진국은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고, 질서정연하고, 법질서가 지켜지고, 사람들이 살면서 모두 편안해야 한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당면한 두 가지는 성공했는데, 한 가지 편안함에 문제가 있다. 바로 우리 사회가 그동안 만들어놓은 두 가지 큰 업적이 만든 부작용, 소위 빈부의 격차, 중산층의 몰락, 그리고 기회의 불평등이다. 이러한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는 우리 사회가 선진국이 되기는 힘들 것이다.

기회의 불평등을 해소하고 사회적 유동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합리적인 시장경제를 바탕으로 파이를 키우면서 조화롭게 나갈 수밖에 없다. 그리고 합리적으로 경제활동을 하면서 사회 각자들이 가지고 있는 재능이나 능력을 나눠야 한다. 나눔과 봉사로 사회의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것이다.

선진국 문제에 있어서 정부도 관심을 갖고, 사회 각계 지도자들이 사회선진화를 위해서 토론하고 합의하고 방향을 정하고, 우리사회가 그 길로 갈 수 있도록 이끌어주는 계기를 만들어갔으면 좋겠다.

연구원의 장만기 회장이 35년 전에 이 일을 시작했을 때는 사실 오늘이 보이지 않았다. 취지는 좋은 일이었지만 혼자서 될까 하는 의구심도 있었다. 그런데 35년을 하니까 오늘과 같은 결과가 나온 것이다. 이 세상에 좋은 뜻을 갖고 오래 하면 그것을 견줄 힘이 없다는 생각을 한다. 이제는 우리 스스로가 주체가 되어서 사회를 발전시키고, 그 바탕위에서 선진국으로 가야 한다.

인간의 문제는 어느 한 축을 가지고 해결될 수 없다. 사회 각 축이 관심을 가지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지금 당면한 국가적 문제도 '정부가 해결하겠지', '여의도가 해결하겠지'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 사회 각계의 지도층이 정당한 자기 의견을 내고 그것을 가지고 큰 물결을 이룰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인간개발연구원이 35년간 해왔던 것처럼 다른 민간부분에서도 자발적인 활동이 일어나서 숲을 이룬다면 그것이 우리나라가 가장 빨리 선진국으로 가는 길이 될 것이다.KHDI

**1** 장만기 인간개발연구원 회장 - 개회사
**2** 창립35주년 기념연구회 후 기념 촬영

**조순** 前 경제부총리 / 인간개발연구원 명예회장

클로징리마크

# 통치가능성의 문제 주권자들 선택 따라야

**통치가능성의 위기 직면**

우리는 지금 겉으로는 평온하지만 속으로는 위기를 겪고 있다. 위기는 일단 터지기 전에는 잘 나타나지 않는다. 지나간 금융위기도 그랬다. 특히 수도분할문제, 세종시 문제를 가지고 이대로 가다가는 정말 위기가 표면화될 수 있다. 위기가 밖에서 온 것이라면 괜찮지만 지금처럼 자기 머리에서 나오는 위기, 가슴에서 나오는 위기는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다.

세종시 문제는 이 두 개가 합쳐진 것이다. 겉으로는 세종시 원안을 찬성하느냐 수정안을 찬성하느냐는 양자 선택의 문제로 나타나고 있지만 정말 문제의 핵심은 앞으로 우리나라를 잘 통치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 수 있는가 없는가의 문제다. 지금 우리는 통치가능성을 염려해야 하는 위기에 처해 있다.

세종시를 원안대로 갈 경우 사실 잘 통치하기가 어려울 것이다. 세종시로 수도의 일부분이 가면 그곳에서 나오는 물리적인 비효율을 극복할 방법이 없다. 더 큰 문제는 가슴속에 있는 분열의 생각들을 극복할 방법이 없다는 것이다.

세종시 때문에 분열이 조장되고 있다고 하는데, 어떻게 보면 세종시 문제 자체가 분열 때문에 생겨난 것이다. 지역감정과 앞으로의 통치, 정권을 위한 욕구 등 여러 가지가 결국 세종시 문제와 결합된 것이다. 결국 원안이 통과됐을 경우 물리적인 비용보다 심리적인 비용을 반영구적으로 불식할 방법이 없다. 그래서 원안에 찬성하고 싶지 않다.

그렇다고 수정안으로 완벽하게 문제가 해결될까. 정부가 나서서 세종시에 어떤 시설이나 지구를 마련해준다고 하면 다른 지역에서 '왜 우리한테는 안 해주냐, 우리에게 올 것이 세종시로 갔다'고 느낀다. 설사 그렇지 않더라도 그렇게 생각할 여지가 충분하다. 결국 원안에 대한 차선은 되겠지만 완전히 자유로울 수는 없다.

**합의 어렵다면 국민에게 물어봐야**

가느냐 마느냐, 원안이냐 아니냐의 선택을 떠나서 여야 정당, 정치인들이 합의가 이루어질 때까지 좀 더 토론을 했으면 좋겠다. 만약 도저히 양쪽 합의가 안 된다면, 우리나라의 주권자들에게 의견을 물어봐야 한다.

지금 보기에는 국회가 통치가능성을 보장할 수 없는 법안을 통과시켰다고 보는데, 통치가능성의 문제가 생길 경우는 주권자들에게 물어봐야 한다. 대통령이 국민에게 사과를 했다. 그런데 사과만 했지 국민들이 받아들이는지 안 받아들이는 지도 모르고 이 문제에 대해서 이기든 지든 덜컥 법안을 올려서 영구적인 갈등의 씨를 남겨서는 안 된다.

지금 수정안을 국회에 제출한 것은 정치적으로는 몰라도 논리적으로는 문제가 있다. 몇 해 전이지만 국회가 원안을 통과시켰다. 국회의원들은 바뀌었지만 똑같은 시스템에서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당선된 똑같은 국회다. 그런 국회가 법안을 만들었다가 수정해서 옳은가 그른가를 판단해달라는 것은 논리적으로 맞지 않다. 국회가 아닌 주권자들에게 과연 국회가 잘했는지 못했는지를 물어본다는 것이 당연한 일이고 논리적으로도 맞는 얘기다.

이 나라를 통치한다고 하는 것은 통치가능성을 확고히 하느냐 안 하느냐에 책임을 진다는 얘기다. 영국의 마가렛 대처 수상은 "나라를 다스리기 위해서는 헌법적인 안정, 법치의 안정, 금융상의 안정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 세 가지 안정이 없다면 나라가 제대로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문제는 바로 여기에 있다. 이 세 가지를 안정시키기 위해서는 결국 국민에게 물어봐야 한다. 거기서 나오는 결정이라면 어떤 것이든 국민의 선택이기 때문에 문제될 것이 없다. 대의자들이 마음대로 국민의 마음을 읽어서 자기들끼리 신의를 지키느니 안 지키느니 할 필요는 없다.KHDI

창립35주년 기념 이벤트

# “인간개발연구원은 ‘ ’다.”

기업 및 경영자 회원들의 관심과 협조 속에 35년이란 긴 세월, 학습하는 대한민국 사회를 이끌어온 인간개발연구원은 지나온 35년에 더해 이후의 50년, 100년의 새로운 창조적 역사를 만들어 나갈 것입니다. 창립35주년을 맞아 회원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인간개발연구원은 ( )(이)다.’ 이벤트 결과를 요약해 소개합니다. 또한 인간개발연구원 창립35주년을 맞아 초창기부터 꾸준히 활동해온 회원들과 목요 조찬세미나 열혈 참가 회원들로부터 받은 축하메시지를 소개하고, 오랜 세월 연구원과 함께 해온 회원들의 회고를 통해 연구원의 다양한 활동이 경영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살펴봅니다. 다양하고 재치있는 답변을 해주신 회원들께 감사드리며 더욱 노력하는 인간개발연구원이 되겠습니다.

- 편집자 주

**희망**

**인간개발연구원은 [희망]이다.**

▶ 사람을 깨우치는 궁극적인 목적은 오늘보다 더 좋은 내일을 만드는 일이다

**조찬회**

**인간개발연구원은 [조찬회]다.**

▶ 매주 목요일을 기다린다. 그날은 희망을 들을 수 있고, 품을 수 있는 날이기 때문이다.

**현실적**

**인간개발연구원은 [현실적]이다.**

▶ 저명한 석학의 연설내용을 통해 많은 지식을 얻게 되어 소중하였고, 또한 국가 정책을 입안하고 시행하는 최일선 책임자들의 생생한 현황과 계획을 담은 내용은 매우 귀중한 자료로서 현재 자신의 삶, 나아가 기업 운영의 참고가 되는 경우가 많았다. 이와 같이 지식의 기본과 이를 응용한 현실의 경험과 know-how를 취득하게 해주기 때문에 ‘현실적’이라고 표현하였다.

**상록수**

**인간개발연구원은 [상록수]이다.**

▶ 35년 동안 항상 푸름을 유지하며 인간 교육의 메카로 성장해왔기 때문이다.

**마쓰시다 정경숙**

**인간개발연구원은 [마쓰시다 정경숙]이다**

▶ 좋은 사람을 만드는 모임이기 때문에

**약룡중물**

**인간개발연구원은 [약룡중물(藥龍中物)]이다.**

▶ 인간개발연구원은 우리나라 발전에 꼭 있어야할 연구원이다.

**연구대상**

**인간개발연구원은 [연구대상]이다.**

▶ 어떻게 그 오래 전에 이런 연구원을 만들 생각을 했는지? 정부 고위직이나 각계각층의 주요 인사들을 지속적으로 강사로 초빙할 수 있는지? 어떻게 그 사람들이 거절하지 않고 강연을 수락하는지 연구대상이다.

**비전 메이커 or 비전 제조기**

**인간개발연구원은 [비전 메이커]이다.**
**혹은 [비전 제조기]이다.**

▶ 당면한 과제와 난관을 해결해 낼 수 있는 비전을 만들고 비전을 실천하는 방법론을 만들어 가는 단체이기 때문이다.

**맑은샘**

**인간개발연구원은 [맑은샘]이다.**

**배움의 장**

**인간개발연구원은 [배움의 장]이다.**

**전도사**

**인간개발연구원은 [전도사]이다.**

▶ 긍정적인 사고를 심어주기 때문이다.

**나침반**

**인간개발연구원은 [나침반]이다.**

▶ 인간개발의 Leading 역할을 주도하고 있음

**장만기 회장**

**인간개발연구원은 [장만기 회장]이다.**

▶ 창립에서 지금까지 인간개발, 인간존중을 위해 열심히 노력하고 계시기 때문이다.

**인간적**

**인간개발연구원은 [인간적]이다**

▶ 장 회장님의 강사소개 멘트를 듣다보면 빠짐이 없으면서도 강사는 물론 듣는 사람들 모두가 거북하지 않도록 참 인간적으로 소개하신다.

**새벽종**

**인간개발연구원은 [새벽종]이다.**

▶ 나를 깨우치고 하루를 시작하는 것과 같은 궤를 의미하는 바임.

**지식환원포럼**

**인간개발연구원은 [지식환원포럼]이다.**

▶ 이렇게 좋은 강의, CEO들의 연륜, 그들의 성공을 자라는 청소년들에게 환원해주는 시간을 마련하기 원합니다.

**삶의 활력소**

**인간개발연구원은 [삶의 활력소]이다.**

▶ 다양한 지식과 지혜를 준다.

**자명종**

**인간개발연구원은 [자명종]이다.**

▶ 배움의 새벽을 깨워준다.

**에너지**

**인간개발연구원은 [에너지]이다.**

▶ 사회생활을 시작하면서 평생교육장으로 기업활동에 정보 경영 사회 정치 전반에 걸친 폭넓은 지식습득의 장이다.

**오아시스**

**인간개발연구원은 [오아시스]이다.**

▶ 힘들고 험한 회사 업무의 연속이지만 목요일 아침은 신선한 내용으로 마음의 갈증을 풀어준다.

**새벽등대**

**인간개발연구원은 [새벽등대]이다.**

▶ 새벽학습은 망망대해를 비추는 등대와 같다. 인간의 삶의 의미는 배움에서 얻어지기 때문이다.

**교양강좌**

**인간개발연구원은 [교양강좌]이다.**

▶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건강 등 여러 분야를 들을 수 있기 때문이다.

# 창립35주년 축하메시지

## "나에게 인간개발연구원은…"

### ● 지속적 경쟁력 필요한 시대에 계몽 계도 역할

35년의 긴 세월동안 우리 사회 구성원, 특히 우리 사회의 리딩 멤버들에게 쉼 없이 계몽 계도 역할을 해 준 인간개발원의 장만기 회장님과 관계자 여러분들의 뜨거운 열정에 경의를 표합니다.

시대는 끊임없이 변화하고 있고 새로운 가치를 추구하는 경쟁력이 지속적으로 필요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사회적 리딩 멤버들이 간직해야 할 것은 새로운 시대를 맞이하는데 필요한 지식과 견문 견식의 축적과 활용이 필수견식의 요소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 동안 인문사회학적 여러 부분에서 축적된 경험과 지식을 전파해 온 경험과 실적을 토대로 미래사회를 준비하는데 필요한 기술변화와 인문학적으로 예상되는 변화 예측에 대해서도 더 많은 계몽 계도의 강좌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더하여 아침 시간을 활용하여 개최되는 강좌의 특성을 헤아려 정해진 시간에 개최하고 종료하는 시간에 마감하는 관리가 매우 중요한 요소라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애써 가꾸어 온 지난날의 발자취가 헛되지 않도록 더욱 가꾸고 키우는데 우리 회원 모두가 열정적으로 동참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기회로 다시 한 번 도약하고 발전하길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허태학 삼성석유화학 상담역**
**인간개발연구원 부회장**

1969년 삼성그룹 중앙개발에 입사해 호텔신라 총지배인, 삼성에버랜드, 호텔신라 사장, 삼성석유화학 사장을 역임했다. 2000년 연구원 회원으로 가입해 활동하고 있으며, 현재 부회장을 맡고 있다.

### ● 내 삶의 철학과 가치관을 심어준 연구원

먼저 창립35주년을 맞이하는 인간개발연구원에 무한한 축하를 보낸다. 아울러 오늘의 연구원이 있기까지 눈물겨운 노력을 기울여 헌신해오신 장만기 회장님께 경의를 드리는 동시에 어려운 여건에서도 묵묵히 애써온 임직원 여러분에게도 충심으로 감사를 드린다.

한마디로 인간개발연구원은 내 삶의 철학과 가치관을 다듬어준 수련의 장이었다고 할만큼 내 삶 속에 깊이 자리매김하고 있음이 사실이다. 불확실한 미래를 점치듯 설계하며 경영에 임해야 하는 고독한 CEO의 한사람이었던 나에게 있어서 매주 어김없이 개최되는 조찬모임은 단순한 '세미나'라는 의미 이상의 그 무엇을 갖게 했으며, 인간개발연구원의 가족됨에 대한 긍지와 자부를 갖게 하였다.

경영현안문제나 때로는 우리 CEO들이 평소 접하기 어려운 분야(문학, 예술, 철학 등)의 생생하고도 집약된 지식을 접할 수 있고, 격의없는 토론의 장을 마련해준 인간개발연구원이야말로 나에게 있어서는 배움의 장이요, 자성의 터전이었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연구원의 숨결이나 일거수 일투족은 나 자신의 그것과도 같이 느껴지며, 그 속에서 이룩되는 모든 일들에 대해 연민의 정마저 갖게 되었음이 사실이다. 그러기에 연구원에 참여한지 어언 27년, 이제는 경영일선에서 물러난 자신이건만, 나는 지금도 매주 어김없이 개최되는 목요 조찬모임이 설레임속에서 기다려지며, 시간이 허용하는 한 동참하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하고자 한다.

다시 한번 창립35주년을 맞이하는 인간개발연구원과 장만기 회장님을 비롯한 연구원 관계자들에게 축하를 드리며, 하나님의 은총 속에서 연구원의 무궁한 발전이 있기를 기원한다.

**최종명 훼미리주택 회장**
**인간개발연구원 특별자문위원**

동아건설 부사장 겸 동아엔지니어링 사장, 대방종합건설 사장, 대한통운국제운송 사장, 화림개발 회장, 한국샘물판매 회장 등을 거쳐 98년부터 훼미리주택 회장을 맡고 있다. 1983년에 회원으로 가입해 현재 특별자문위원을 맡고 있다.

### ● 인간개발연구원은 '감동의 샘'이었다

내가 인간개발연구원을 처음 찾아갔던 그 날도 이런 추운 겨울날 아침이었던 것 같다. 구로공단에서 새마을 교육을 마치면서 누군가로부터 소개받았기 때문이다. 장소는 을지로 명문 롯데호텔이라고 했다. 그 때만해도 이런 호텔출입은 VIP들의 전유물로 나에게는 마치 시골학생이 도회지 학교에 들어서는 기분이었다.

초행길이어서 새벽잠을 설치며 그날은 일찍이 집을 나섰으나 벌써 강연장은 많은 경영자들로 가득 차 있었다. 그때야말로 회사를 차려서 20년이 가까워오면서 세계시장을 찾아 이리저리 뛰어 다니며 몹시 바쁠 때였다. 초기에는 목요일 아침 시간을 지키기가 힘겨웠으나 차차 세월이 가면서 익숙해지고 국내외 출장도 이 날을 피해나갔고 부득이 결석하는 날에는 마음이 늘 불안하고 세상에서 나만이 낙오자가 되는 듯한 심정이었다.

그 어느 날 아침은 일본인 강사 교도구 선생의 열정 넘치는 강의가 있었다. '암스테르담의 한 호숫가에 독거노인이 움막을 치고 살았는데 아침마다 눈을 뜨면 모여든 들오리들에게 모이를 주며 친근해졌다. 재미가 붙은 오리들은 매일 그 시간 그 자리에 모여서 노인이 주는 모이에 편안한 나날을 보냈다. 그러던 어느 날 갑자기 눈사태가 나면서 뒷산이 무너져 그만 들오리들을 덮쳤다. 갑작스러운 변화에 몸으로 날아갈 수가 없어 모두가 압사당하고 말았다'는 이야기였다. "여러분! 인간도 예외가 아니며 이렇게 편안한 나날을 보내다 보면 불행한 종말이 옵니다." 경악된 소리로 외치던 그의 모습이 지금도 기억에 생생하다. '安住는 禁物'이라는 짧은 한마디가 나의 후반 인생길에 '감동의 샘'이 되어 조용히 흐르고 있다.

그러나 나는 지난 10여 년 간 한국기독실업인회와 아시아 기독실업인회의 책임을 맡아 국내외를 순회하면서부터 참석이 부득이하게 부실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마음만은 늘 롯데목요조찬회에 가 있었다. 언제부터인가 아침이면 여기저기 조찬 모임이 중첩해졌으나 우선순위로는 그래도 역시 인간개발연구원이 그 첫째이고, 그 다음이 기독실업인회, 한국수입업협회, 한국능률협회, 무역협회, 상공회의소, 그리고 기타의 순이다. 또한 언제부터인가 연구회에서는 친절하게도 항상 꼼꼼히 챙겨 보내오는 CD로 결강을 보완할 수 있어 공부의 끈을 놓지 않고 있는 샘이다.

2년 전에는 연구원에서 두바이와 도요타자동차를 벤치마킹하러 가게 되었다. 그 때 뜻밖에도 단장이라는 이름이 인연이 되어 조직된 모임이 '책글쓰기를 위한 에세이클럽'이다. 이 클럽의 회합도 어느 덧 12월로 15번째가 되었다. 이번에는 송년회로 크리스마스트리 분위기가 있는 멋진 곳에서 한 해의 회한을 나누기도 했다.

'좋은 사람이 좋은 세상을 만든다'는 연구원의 기본에 충실하려면 먼저 우리 모두가 글쓰기, 책쓰기 에세이스트가 되어보라고 감히 권해본다. 이 일이야말로 감성의 사유함이 넉넉해지기 때문이다. 우리 클럽에서는 벌써 여러분들이 글쓰기를 익혀서 유상옥 회장은 코리아나 화장품의 지난날의 삶에 대한 수필집과 수기들을 여러 권 상재했고, 또 계획 중에 있다. 수필의 대가인 손광성 선생의 지도를 받으며 새해에는 더 많은 작가들이 탄생될 것이다. 이렇게 경영자 여러분들의 지난 날 애증과 지혜를 뒤에 오는 젊은 CEO들을 위해 흔적을 남겨놓는 일이야말로 값진 유산이라 본다.

다시 한 번 인간개발원 35주년을 진심으로 축하한다. 우리 세대들은 지난 날 배움의 젊은 시절을 산업발전에 몸 바쳤으니 늘 학문의 배고픔을 느끼며 오늘을 살아왔다. 장만기 회장은 일찍이 이런 시대의 아픔을 알고 맨손으로 시작한 롯데공부방이 어느 덧 30년하고도 5년이란 세월이 흘렀다. 이제는 전무후무한 민간인 교육 기관으로 눈부시게 자리매김하게 되었다.

새해에는 더욱 신의 은총이 함께 하여 고객의 니즈에 더욱 충실한 커리큘럼으로 크게 발전하기를 기원해본다. 이 시간도 내조하는 엄경애 여사와 임직원 여러분에게도 감사의 인사를 드린다.

**김창송 성원교역(주) 회장**
**인간개발연구원 부회장**

한국기독실업인회 명예회장, 대한상사협회 부회장, 한국수입업협회 연수원장, 한국수필문학진흥회 부회장 등으로 왕성한 활동 중이며, 여러 권의 수필집을 펴낸 바 있다. 연구원 초창기 멤버로서 현재 부회장 및 책글쓰기를 위한 에세이클럽 회장을 맡고 있다.

# 창립35주년 축하메시지

## "나에게 인간개발연구원은…"

### ● 연구원과의 만남은 내 삶을 윤택케 한 행운

한 주일을 시작하는 월요일 아침, 일주일간의 행사계획을 짜면서 가장 기대가 크고 기다리게 되는 행사는 목요일 아침 인간개발연구원 조찬모임에 참석하는 것이다. 습관적으로 매주 한번 씩 좋은 강의를 들으며 그 핵심내용을 메모하고 질문할 것을 준비하는 것이 큰 즐거움의 하나가 되었다.

그리고 강의한 내용을 녹취한 CD를 보내주기 때문에 몇 차례 반복 학습할 수 있어서  좋고, 그 CD를 회사의 간부들에게 돌려가면서 듣도록 하기 때문에 나 혼자만이 아니라 회사 간부 전체의 지적 수준 향상에 크게 도움이 되고 있다. 지금까지 20년 이상 각 분야 1천명 이상의 강사로부터 주옥같은 강의를 들어왔다. 그래서 인간개발연구원과의 만남은 내 삶을 윤택케 하는 행운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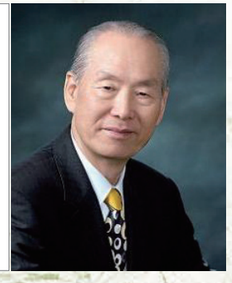
사실, 저명한 인사나 강사의 논문이나 책을 구해 읽을 수는 있다. 그러나 어디에 있는 누구의 글을 어떻게 구해 읽어야 할지를 찾는 일은 그리 쉬운 일이 아니다. 그리고 설사 그러한 논문이나 책을 구한다 하더라도 그것을 읽는데 최소 하루 또는 며칠이 소요될 뿐 아니라 그러한 책 속에는 꼭 필요치 않은 내용도 다수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다 읽기에는 시간이 아깝다고 느낄 경우도 있다.

그러나 조찬회의 장점은 초빙된 강사가 한 평생의 삶, 그가 저술한 한 권의 책, 몇 십 년 동안 연구해온 내용을 압축 요약해서 두 시간 내에 강의 해주기 때문에 항상 시간에 쫓기는 우리 경영자들에게는 말할 수없이 편리하다.

그리고 책을 구해 읽다보면 의문이 생기고 동의하지 못하는 부문이 있을 때 그 저자와 연락해서 회답을 얻는 것은 전혀 불가능한 일은 아니라 하더라도 그리 쉽지 않다. 그러나 조찬회에서는 그 자리에서 강사에게 바로 질문하여 원하는 답을 구할 수도 있고, 반론을 제기해 토론해 볼 수도 있으며, 미처 본인이 생각하지 못한 내용에 대해 동료회원이 좋은 질문을 해주게 되면 덤으로 숨어 있는 진실을 깨닫게 될 수도 있다.

조찬모임을 주선하면서 아까운 시간을 할애하여 참석하는 경영자들에게 무엇인가 새롭고 유익한 내용을 전달할 수 있도록 강사진을 구성, 초빙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일 터인데도 국내뿐 아니라 여러 나라에서 명망 있는 강사와 주제를 두루 안배해서 경영관련 주제뿐만 아니라 건강, 문화, 예술, 취미생활 등 폭넓게 강의내용을 편성하는 것은 주최측의 탁월한 능력이라 생각한다.

지난 35년 동안 우리 경영자들을 위하여 평생교육의 장을 마련해 온 것에 대하여 경의를 표하며 앞으로도 끊임없는 발전이 있기를 기원한다. KHDI



**이원기 원풍물산(주) 회장**
**인간개발연구원 부회장**

국방부 예비군국 편성관리과장과 병무청 비서실장을 거쳐 1972년 원풍물산을 창업해 오늘에 이르고 있다. 노빈인터내셔날 회장을 겸하고 있다. 1990년도에 연구원 회원으로 가입해 부회장으로 활동 중이다.

### ● 외길 35년, 다양한 정보공유의 場

인간개발연구원의 조찬모임은 매주 목요일 아침 6시30분 장만기 회장님의 환한 웃음으로 회원들을 맞이하면서 시작된다. 1975년 2월 5일, 자원이 없는 나라가 산업화를 시작하면서 '좋은 사람이 좋은 세상을 만든다'는 신념 하나로 외길 35년을 굳건히 걸어온 장 회장님의 인내와 노고에 큰 박수를 보낸다.

본 강의가 시작되기 전, 김동철 고문이 좌장으로 계신 우리 테이블은 언제나 제일 먼저 만석이 된다. 김 고문은 연구원의 탄생과 더불어 창설멤버로서 35년간 출석하신 경험과 연륜이 테이블 분위기를 잡기에 충분하다.

본 강의 전 약 30분간 미니포럼(Mini-Forum)이 시작된다. 한 주일 동안 각자가 경험하고 얻은 지식을 서로 먼저 발표하고 토론하며 참고가 되는 자료는 복사)하여 나누어주기도 한다. 여기에서 얻어지는 정치, 경제, 문화, 건강 등 지식이 상당하여 조기만석이 되는 이유를 알 것만 같다.

그리고 한 달에 한 번씩 각 그룹별로 모이는 석찬모임도 유익하여 기다려진다. 제1그룹은 이종기업모임으로 유상옥 회장이 정성 들여 이끌어 가는 유익한 모임이다. 각각 다른 영역에서 성공한 CEO모임으로 성공경험, 실패경험을 바탕으로 토론이 시작되면 밤늦은 줄 모른다. 각각 다른 전문분야, 경영, 세무, 건강, 가정문제 등 다양한 주제가 토론되면서 정보공유의 장이 된다.

또한 연구원 행사 중 빠질 수 없는 것이 '책글쓰기를 위한 에세이클럽'이다. 김창송 회장은 풍부한 경험과 그동안 몇 차례나 수필집을 내면서 얻은 지식으로 이 모임을 건전하고 유익하게 이끌어 글을 쓰겠다는 의지를 가진 사람에게는 희망과 용기를 주고 있다. 전문강사를 초청하기도 하고 수필쓰기와 책쓰기 그룹으로 나누어 토론형식으로 진행하면서 회원들이 쓰는 수필을 감상하고 논평도 하며 많은 지식을 습득하는 장이 되기도 한다.

21세기 들어 지식정보와 인터넷 통신혁명으로 세계는 급속도로 변하면서 개방과 다양성을 요구하고 있다. 변화의 속도가 너무 빨라 나의 경쟁자가 어디서 어떤 모양으로 나타날지 모르는 초경쟁사회로 진입하고 있다. 개인, 기업, 국가도 엄청난 상상력과 창의력이 요구되는 시대를 맞아 진정한 선진국이 되려면 국민소득 3만 불도 중요하지만 인적자원개발의 선진화가 되어야한다. 인간개발연구원은 이러한 환경변화에 사람선진화의 사명을 가지고 50년, 100년 승승장구하는 명문연구원으로 재탄생하기를 기대해본다. KHDI

**정문호 동국산업(주) 부회장**
**2005년 활동 시작한 열성 멤버**

1969년 동국제강에 입사해 동국제강그룹 美 현지법인 사장, 동국산업 사장 등 40년간 한 직장에만 몸담고 있는 전문경영인이다. 현재 동국산업 부회장으로 재직하고 있다. 2005년 연구원 회원으로 가입해 조찬세미나 등 연구원 행사에 빠지지 않고 참석하는 열혈 멤버 중 한 명이다.

노인이 살기 좋은 나라

# 젊은 노인사회 이끌어 국가발전 원동력으로 삼을 것

사진 · 오경근 원장

● INTERVIEW
이심 대한노인회 회장

1939년 생으로 건국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대한무역진흥공사 부참사와 에스콰이어(주) 상무이사를 지냈다. 1975년 월간 현대주택 발행을 시작으로 주간 한국주택신문, 월간 하우징다이제스트, 월간 전원속의 내집, 노년시대신문 등을 발행하며 미디어그룹을 일궈왔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 회장, 한국잡지협회 회장 등을 역임하며 해당 분야 발전에 큰 공헌을 하기도 했다. 현재 (주)주택문화사 회장, 월간 전원속의 내집 발행인, 인간개발연구원 부회장, (사)어린이유괴 · 성범죄추방국민운동본부 대표회장, 대한노인회 노인자살대책위원회 부회장 등으로 활동 중이다.

"대한노인회장으로서 노인이 살기 좋은 나라를 만드는 일을 할 수 있게 되어 인생의 큰 보람입니다."

지난 2월 18일, 이심 노년시대신문 발행인 회장이 대한노인회 제15대 중앙회장에 당선되었다. 이심 회장은 향후 4년 동안 대한노인회를 이끌게 된다. 대한노인회는 16개 광역시도연합회, 245개 시군구지회, 6만여 개 경로당에 260만 회원이 활동하고 있는 거대 조직으로 대한민국 최대 규모의 노인단체다.

이 회장은 대한노인회의 산적한 현안 해결이 시급해 당선의 기쁨에 빠져있을 수만은 없다며 일에 대한 강한 열정을 피력하는 것으로 당선소감을 대신했다. 그도 그럴 것이 저출산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노인인구는 늘고, 이들은 더 이상 대접만 받는 계층이 아니라 사회를 이끌어가야 하는 등 그 역할이 점차 커지고 있다.

그래서인지 이 회장이 당선되고 가장 먼저 이명박 대통령과 전재희 보건복지가족부 장관이 축하 화분을 보내올 정도로 정부의 관심도 크다. 인터뷰를 위해 방문한 노인회장 집무실은 정치권을 비롯한 각계에서 보내온 축하 화분으로 발 디딜 틈이 없었다. 대한노인회의 역할과 활동에 거는 사회적 기대가 상당하다는 것을 짐작케 하는 부분이다.

대한노인회기본법 제정을 이뤄 대한노인회의 법적 존립기반을 마련하는 등 공약으로 내세운 4대 분야 8대 과제를 꼭 실현해 '노인이 살기 좋은 선진 대한민국을 만들겠다'는 이심 회장을 만나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 들어봤다.

대담 : 장만기 인간개발연구원 회장

**대한노인회 제15대 중앙회장에 당선되신 것을 먼저 축하드립니다. 소감 한 말씀 해주시죠.**

이심 회장 : 우리나라 대표 어르신단체인 대한노인회 회장에 당선되었다는 기쁨에 앞서 산적한 현안들을 해결하는 것이 시급합니다. 앞으로 대한민국을 노인들이 살기 좋은 나라로 만드는 일과 대한노인회를 그와 같은 일을 원활하게 실천할 수 있는 조직으로 만드는 게 가장 큰 목표입니다.

노인들이 살기 좋은 나라가 진짜 선진국이죠. 그런 나라를 만들어야 하고, 그 일을 대한노인회가 해야한다는 점에서 심리적으로 큰 부담을 갖고 있긴 하지만 한꺼번에 이루어질 수는 없는 일이기에 하나하나 실천해나가기 위한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대한노인회는 지역사회 봉사활동, 3세대 예절교육, 전통문화 보전 계승, 일자리 창출, 노인자살예방, 노인 의료비 절감, 환경보호, 어린이지킴이, 불우이웃돕기 등 시급한 현안이 산적해 있습니다. 앞으로 선택과 집중을 통해 전국 6만여 곳의 경로당을 중심으로 명실상부한 어르신단체로서 존경받을 수 있도록 비전을 확립하고, 이를 실천하기 위한 제도와 시스템을 정비하는 한편 중앙정부 및 지자체와 긴밀한 협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1 선관위장으로부터 당선증 교부
2 이심 회장이 서울연합회장 직무대행으로부터 당선축하패를 받고 있다

1

2

**저출산고령화가 진행되면서 대한노인회의 역할과 위상에도 많은 변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심 회장 : 지금 대한민국은 심각한 고령화를 겪고 있는데, 국가 흥망성쇠의 역사적 전환기에 놓여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저출산고령화라는 중대 과제를 앞으로 어떻게 풀어 가느냐에 따라 대한민국의 미래가 결정될 겁니다. 저출산과 고령화는 별개의 사안이 아니라 하나로 묶어 고민해야 할 문제입니다. 당장 출산율을 높이는 것이 어렵다면 노인들이 급격히 감소하는 경제활동인구를 보충하고 적극적인 사회참여를 통해 국가와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고 봐요. 노인의 사회적 역할이 중요한 시대가 도래한 겁니다.

대한노인회는 16개 광역시도연합회, 245개 시군구지회, 2005개 읍면동분회, 6만여 개 경로당에 260만 회원으로 구성된 국내 최대 규모의 노인단체입니다. 이제 대한노인회는 상징적인 노인단체에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해야 할 일이 너무 많아 한시라도 고삐를 늦출 수 없는 상황이죠. 전국 520만 노인들과 함께 임기 동안 대한노인회가 국가발전의 원동력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과거 한국잡지협회장을 역임하면서 잡지진흥법을 제정해 업계의 어려움을 해결하신 바 있습니다. 이번에도 제1공약으로 대한노인회기본법 제정을 내세우셨는데요. 법 제정 근거와 실행계획은 어떻습니까.**

이심 회장 : 대한노인회 안팎에서 변화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변화를 위해서는 우선 대한노인회의 존재 이유를 법적으로 보장받아야 합니다. '대한노인회기본법' 제정을 통해 조직운영과 관련한 제반 사항을 법적으로 보장받아야 한다는 겁니다.

좋은 예가 '잡지진흥법'이죠. 2002년부터 4년 동안 한국잡지협회장을 역임하면서 여러 국회의원들과 합심해 잡지진흥법을 제정했습니다. 이후 고사 위기에 놓여 있던 잡지업계가 법적 지위와 지원을 보장받으면서 재도약 할 수 있었죠. 이처럼 대한노인회도 법적 지위와 재정지원을 보장받아야 한다는 생각에 공약으로 발표하게 된 겁니다.

물론 쉬운 일은 아니지만 이미 한나라당 윤석용 의원이 '경로당지원법'을 대표발의했습니다. 경로당 활성화와 운영을 중앙 및 지방정부가 적극 지원하자는 법안이죠. 이 법안 제정을 바탕으로 심층적인 논의를 거쳐 확대 발전시킨다면 경로당을 하부조직으로 삼고 있는 대한노인회도 법적 존립기반을 확보할 수 있을 겁니다.

대한노인회기본법이 제정되면 대한노인회가 고령화사회 핵심 노인단체로서 책임과 의무를 다할 수 있으며, 노인복지와 권익향상을 위한 진정한 주춧돌이 될 것입니다.

**경로당 활성화 프로그램을 도입해 전개할 계획으로 들었습니다.**

이심 회장 : 우리나라 전통의 사랑방에서 시작된 것이 경로당입니다. 이런 경로당을 활성화시킬 방법으로 '출향인사 경로당 찾기운동'을 시작했습니다. 각 지역 경로당이 해당지역 출향인사와 해외동포들을 자랑스러운 고향 사람으로 대접함으로써 고향에 대한 그리움을 달래주는 동시에 감동을 주고, 후세대에게는 인생의 롤 모델로 삼도록 하자는 운동이죠.

독일에서 귀화한 이참 한국관광공사 사장이 고향마을의 초청을 받고 금의환향해 환대 받은 사례가 좋은 예라고 할 수 있어요. 이러한 사례를 많이 만들어서 경로당을 활성화시키자는 겁니다. 특히 출향인사들이 고향 경로당에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는 분위기를 조성하고 네트워크를 구축한다면 경로당은 물론 지역사회 발전에 지대한 공헌을 하게 될 겁니다.

이심 회장이 고향인 경북 성주의 경로당을 방문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이 외에도 여러 공약들을 발표하셨습니다. 소개와 함께 계획도 말씀해주시죠.**

이심 회장 : 이번 선거에서 4대 분야 8대 과제를 선정해 공약으로 발표했는데요. 대한노인회기본법 제정 외에도 회원배가 및 사회참여 확대, 중앙회 재정확충, 대한노인회의 역동적 활동 강화 등 4대 분야와 함께 8대 과제를 선정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실제 앞으로 대한노인회의 중점사업이 될 겁니다.

이를 실천하기 위해 법제위원회, 여성위원회, 교육위원회, 상훈위원회, 게이트볼위원회, 그라운드골프위원회, 경로당활성화위원회, 지회활성화지원위원회, 대한노인회관 신축 추진위원회 등 9개 분과위원회를 구성하고 분과위원장을 선임해 본격적인 업무에 들어갔습니다. 앞으로 9개의 분과위원회는 4대 분야 8대 과제를 해결하는 중추적인 역할을 해나갈 것입니다.

이밖에도 대한노인회 조직을 근간으로 하는 어린이유괴 · 성범죄추방국민운동본부의 활동을 강화, 어르신들이 대한민국의 미래요 꿈나무인 어린이 및 청소년의 안전을 지키는 대업에 적극 나서도록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각종 건강 문화사업을 시행,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를 확보하는 한편 노인우울증을 해소하고, 자살예방에도 적극 나서겠습니다.

● **4대 분야 8대 과제**

**제1대 분야 대한노인회기본법 제정 추진**

1. 명실상부한 웃어른단체 · 전문가단체로 도약
2. 대한노인회의 법적 지위와 역할 근거 마련
3. 연합회장, 지회장 훈 · 포장 서훈 확대 및 청와대 초청간담회 정례화

**제2대 분야 회원배가 및 사회참여 확대**

4. 260만 회원, 400만 명 확대
5. 노인회 회원을 위한 맞춤형 복지시책 추진

**제3대 분야 중앙회 재정확충**

6. 다양한 재정확보정책 수립 및 시행

**제4대 분야 대한노인회의 역동적 활동 강화**

7. 사무처장, 사무국장 등 직원 처우 개선 및 조직 쇄신
8. 노인복지통합정보망 구축

**노인복지 관련 역점사업에 대해서도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심 회장 : 지금까지는 노인복지정책의 수혜자인 노인을 하나의 집단으로 설정함으로써 의도하지 않은 사각지대가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정부도 이런 모순을 바로잡기 위해 '사회복지통합관리망'을 구축해 운영하고 있죠. 대한노인회도 연합회, 지회, 분회, 경로당 조직을 근간으로 정부의 사회복지통합관리망을 지원하는 업무를 개발해 노인일자리사업으로 추진하는 한편 노인 부문의 정확한 정보구축에 기여하도록 할 생각입니다.

이와 함께 고령화로 인한 노인인구 증가에 따라 정부재정지출이 급증하고 있는데요. 대한노인회가 시니어클럽과 노인복지관 운영에 적극 동참하고, 게이트볼 및 그라운드골프 대회를 주관해 건강하고 행복한 노인복지를 실현해 정부의 부담을 줄이도록 할 계획입니다.

**이미 대한노인회와 공동으로 노년시대신문을 창간해 노년층의 언론 창구 역할을 하고 계신데요. 신문을 창간하게 된 계기가 궁금합니다.**

이심 회장 : 대한노인회와 노인전문신문을 창간하기로 합의했던 2005년 초만 하더라도 사회적으로 노인복지나 노인권익에 대한 개념이 크게 부각되지 못했습니다. 노인복지향상과 권익증진을 요구하는 목소리는 노인사회 내부에서만 울리는 메아리에 불과했죠.

과거 몸을 바쳐 이 나라를 경제대국의 반열에 올려놓은 어르신들에게 돌아온 것은 '노쇠하고 무기력한 노인'이라는 낙인뿐이었습니다. 이는 제가 받고 있는 사회적 설움이자 불만이기도 했죠.

그래서 결심한 것이 "가슴에 응어리를 안고 살아가는 대한민국 노인들의 언로(言路)를 만들어 하고 싶은 말이라도 실컷 하게 하자"는 것이었습니다. 사실 노인들을 위한 신문의 필요성은 사회적으로도 인지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하지만 재정적인 뒷받침이 어렵다는 것이 그동안 걸림돌이었죠. 노년시대신문을 창간한 뒤 온갖 역경을 극복하고 지금껏 발행하고 있는 것은 시대적 사명이자 하늘의 뜻이라고 생각합니다.

신임회장단과 고 안필준 회장 묘역을 참배하고 있는 이심 회장

**노년시대신문이 창간 4주년이 지났는데요. 그동안의 가장 큰 성과라면 어떤 게 있을까요..**

이심 회장 : 가장 큰 성과라면 2007년 12월, 노년시대신문 주최로 대통령후보 간담회를 개최한 일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당시 대선에 도전한 한나라당 이명박 후보, 민주신당 정동영 후보, 무소속 이회창 후보 등 이른바 빅3를 대한노인회로 초청해 마련한 간담회에 세 후보가 같은 날 방문해 저마다 노인복지공약을 발표했었죠.

노년시대신문은 대한노인회와 대선후보 간담회를 진행하면서 우리의 역량을 재차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대한노인회가 있었기에 노년시대신문이 있고, 노년시대신문이 있었기에 대한노인회의 위상이 한층 강화됐다는 사실은 부인할 수 없습니다.

**노년시대신문이 대한노인회와 함께 노인복지향상과 노인권익증진을 위한 '노인3법' 제정을 이끌어낸 것도 큰 화제였습니다.**

이심 회장 : 2005년 이후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노인문제가 국가적인 이슈로 떠올랐습니다. 노년시대신문은 대한노인회와 함께 선진국형 노인복지제도인 노인장기요양보험법과 기초노령연금법 입법을 촉구해 2007년 4월 법 제정을 이끌어냈습니다.
이와 함께 사라져 가는 전통미덕인 효 사상을 고취하고 후세대에 효행을 장려하기 위해 발의된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도 추진해 같은 해 7월 국회 본회의 통과를 주도했습니다. 이른바 '노인3법'을 노년시대신문 창간 1년 여만에 이끌어낸 것 또한 큰 성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2007년 대선 당시 '노인표가 당락을 좌우했다'는 말이 있었습니다. 다가오는 6월 지방선거에 대해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이심 회장 : 2007년 대선 당시 노년시대신문 주최의 대통령후보 간담회에 후보들이 찾아와 노인복지공약을 발표한 것은 단순히 노인표를 의식해서가 아닙니다. 그만큼 대한노인회의 위상이 높아졌기 때문이죠.
노인인구가 증가하면서 선거에서 노인표가 중요해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투표자 비율은 유권자 대비 20%에 불과하지만 선거결과에 미치는 영향은 40% 정도까지 되는 걸로 분석하고 있어요.
그러나 대한노인회가 선거에 영향을 미칠만한 활동을 한다기보다 앞으로 실시될 지방선거에서는 노인정책, 노인복지를 적극적으로 펼칠 수 있는 후보를 선택하고, 대선에서는 국가발전을 위해 일할 수 있는 사람을 선택하는 등 애국적인 견해를 가지고 판단하도록 할 생각입니다. 다만 전반적인 선거문화를 개선함에 있어 노인들의 목소리를 반영해야 한다는 점은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출산 고령화사회에 접어들고 있는 지금 우리사회의 바람직한 시니어상이라면 어떤 것일까요.**

이심 회장 : 노인과 노인사회가 대한민국의 국격을 높이는 일에 적극 나서야 합니다. 동남아를 비롯한 개발도상국들이 우리의 새마을운동을 벤치마킹하려고 하는데, 사실 새마을운동을 일으킨 주역들이 지금의 경로당 회원들이고 노인들이죠. 전 세계가 고령화를 겪고 있는 현 시점에서 머지 않아 우리의 경로당 제도와 문화를 배우기 위해 몰려들 겁니다. 노인들이 나서서 그 때를 대비해야죠.
고령화가 진행되면서 노인들은 더 이상 사회적으로 대접받는 계층이 아니라 함께 사회를 끌고 나가려는 노력을 해야 합니다. 10명 중 3명이 노인인 사회에서 누가 누구를 대접할 수 있겠습니까. 노인복지가 확산되면 당연히 더 많은 혜택을 받겠지만 노인들 스스로 권리를 누리려고만 하지 말고 국가에 봉사하려는 마인드를 가져야 합니다. 이러한 마인드 정착이 노인사회를 보다 젊게 유지하는 비결이 될 겁니다.

이심 회장과 장만기 회장이 대담을 나누고 있다

**그동안 주택문화사 미디어그룹 등 사업을 경영하는 동안 한 차례도 위기를 맞지 않을 만큼 내실경영을 해오셨다고 들었습니다. 철저한 경영철학이 바탕에 있었기에 가능했던 일일 텐데요. 대한노인회를 이끌어갈 철학도 남다를 것 같습니다.**

이심 회장 : 대한노인회 조직도 이제는 CEO마인드를 접목시켜야 한다는 대의원들의 뜻이 있었기에 제가 회장에 당선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70년대 주택이라는 개념이 전근대적인 생각을 벗어나지 못하거나 치부의 수단으로만 인식될 때 과감히 주거공간에 대한 문화를 새롭게 정립했던 것부터 최근의 노년시대신문까지 그동안 여러 매체들을 발행하고 경영하면서 쌓은 노하우를 대한노인회 운영에도 접목하려고 합니다.
흔히 한 단체의 장이 바뀌면 전체 업무가 뒤바뀌고 조직을 전면 재구성하는 등 큰 변화가 있게 마련이죠. 하지만 대한노인회는 성급한 혁신보다는 워밍업 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지고 천천히 혁신할 부분을 찾을 생각입니다.
대한노인회에 근무하는 직원들도 직장으로서 근무한다는 개념이 아니라 바람직한 노인사회를 구축하기 위한 일을 함으로써 보람과 긍지를 가질 수 있도록 하고, 연합회나 지회장들 또한 국가와 사회를 위해 봉사한다는 자부심을 가지도록 만들 겁니다.
사실 대한노인회는 조직은 거대하지만 유기적인 움직임이 많이 부족해요. 중앙회, 연합회, 지회가 제각각 따로 돌고 있는 모습이죠. 이걸 하나의 벨트로 연결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스위치를 켜면 전국의 조직이 동시에 움직이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이러한 기본 방향을 통해 계획들을 세우고 실천하다 보면 대한노인회도 변화하고 우리사회도 많이 바뀔 겁니다. 아마 3년 후쯤이면 제2의 노인문화가 창출되는 등 가시적인 성과가 나올 것으로 생각합니다.

제2의 노인문화 창출을 꿈꾸는 이심 회장

**경영과 함께 다양한 사회활동을 하시면서 보람도 많으셨을 것 같습니다. 인생의 가장 큰 보람을 기억하신다면 어떤 것일까요.**

이심 회장 : 그동안 여러 분야에서 일해 왔지만 특히 기억에 남는 일이 80년대 후반 한국공인중개사협회장을 역임하면서 복덕방시대에서 공인중개사 제도를 만드는 일에 열정을 쏟았습니다. 그때가 50대였죠.
60대에는 한국잡지협회장을 하면서 '잡지도 문화콘텐츠로 가야 한다, 문화대국은 잡지가 잘 되는 나라'라고 주장해서 결국 잡지진흥법을 제정하고, 정부로부터 200억 원을 지원 받아 잡지회관을 건립하고 세계잡지대회를 개최하는 등 성과를 올리기도 했습니다.
70대에 접어든 지금은 대한노인회 회장으로서 '노인이 즐겁게 사는 나라'를 만드는 일을 할 수 있게 되었으니 그 자체가 인생의 큰 보람입니다.

**회장님께서는 연구원의 부회장으로서 그동안 연구원 발전에 많은 도움을 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연구원에 대한 제언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이심 회장 : 인간개발연구원이 35년을 이어오는 동안 장만기 회장께서 정말 인간을 개발하기 위한 많은 노력을 해오셨습니다. 그 결과 국가발전에 상당한 기여를 했다는 것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죠. 저도 연구원에서 주최하는 조찬세미나를 통해 정보를 축적하고, 지혜와 지식을 얻었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사회가 고령화되어가면서 노인복지에 관한 이야기를 많이 하게 되는데, 그 중에서도 교육복지가 가장 중요합니다. 전인적 차원의 교육을 통해 노인들이 바로 서면 가족이 바로 서고, 사회가 바로 서게 됩니다. 또 공부처럼 건강에 좋은 것이 없어요. 노인들은 삶에서 얻은 많은 지혜를 가지고 있는데, 이 지혜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계속 공부해야 하고, 또 그 유산을 후대에 남겨줘야 합니다.
그런 점에서 연구원과 협력해서 노인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거나 노인문제에 관한 연구를 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그렇게 된다면 대한노인회도 활성화되고 연구원도 시대적 과제에 관심을 갖고 활동하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정리 · 정용달 홍보팀장 (dal2020@khdi.or.kr)

**※바쁘신 중에 장시간 동안 좋은 말씀 해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항상 건강하시고 앞으로 더욱 큰 발전이 있으시길 기원합니다.**

# 바흐와 헨델이 결혼하여 음악을 낳았다

글 · 박종하 (박종하창의력연구소 대표)

주말에 TV 채널을 돌리다 우연히 장학퀴즈를 봤다. 문제를 잘 풀지는 못해도 가끔 골든벨이나 장학퀴즈 등을 보게 된다. 내가 아는 문제가 한 번쯤 나오기를 기대하는 것 같다. 그날도 잠깐이지만 아들딸과 같이 퀴즈를 풀었다.

"음악의 어머니는?"

아들과 딸은 너무 쉬운 문제라며 헨델이라고 답했다. 자신들이 맞출 수 있는 문제가 나왔다는 사실로 아이들은 매우 즐겁고 기뻐했다. 기분 좋게 의기양양해있는 아이들에게 나는 물었다. "음악의 아버지는?" 이번에도 아이들은 "바흐"라며 정답을 이야기한다. 그래서 또 한 번 물었다.

"왜 음악의 어머니는 헨델이고 아버지는 바흐야?"

**왜 그렇게 말하기 시작했을까?**

아이들은 대답하지 못했다. 나는 초등학생에게 이 질문에 대한 정확한 답을 기대하고 물었던 것은 아니다. 나는 그런 질문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지적하고 싶었다. 무엇이든 '왜 그렇게 말하기 시작했을까?' 하는 질문하는 태도가 진짜 공부라는 것을 알려주고 싶었다.

그런데 아이들은 왜 그런 쓸데없는 이야기를 하느냐는 표정으로 나를 쳐다봤다. 나의 말에는 귀 기울이지 않고 '음악의 어머니=헨델', '음악의 아버지=바흐' 이것으로 충분하고 더 이상 알고 싶지 않다는 태도를 보이는 것이었다.

더욱 황당한 건 아이들이 헨델을 여자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이었다. 음악의 어머니니까 당연히 헨델을 여자라고 생각하는 것이다. 사실, 나도 바로크 시대의 음악이니 교향곡이니 하는 것은 알지도 못하고 알고 싶지도 않다. 바흐의 음악을 들으면 장엄하고 엄격한 아버지 같다는 생각을 하고, 헨델의 음악을 들으면 화려하고 아름다운 어머니 같다는 느낌을 받지도 않는다. 그런 것에 나도 관심이 없다.

하지만, 나를 정작 놀라게 했던 것은 아이들의 당당함이다. 아이들은 자신들이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다는 생각보다는 자기들은 알 것을 충분히 다 알고 있다는 입장이었다. 그러니 더 이상 왜 사람들이 그들에게 그런 별명(?)을 붙였는지에 대한 질문 자체가 필요 없다는 태도를 보인 것이다.

**생각은 습관처럼 몸에 익히는 것**

생각해보면 뜻도 모르고 이유도 모르는 '음악의 어머니=헨델', '음악의 아버지=바흐'와 같은 류의 암기를 몇 개 더 해서 시험에 100점을 받으면 엄마가 좋아하고 감격하는 것이다. 그런 암기를 조금 틀리면 90점, 80점을 받아 엄마는 실망한다.

예전에 이런 대표적인 암기가 '토마토=채소'다. 토마토는 과일일 거 같은데 시험문제에 토마토가 나오면 채소를 선택해야 한다. 그런데 이 문제도 마찬가지다. 과일과 채소의 기준은 무엇인가? 우리가 과일처럼 느끼는 토마토는 어떤 기준으로 채소라고 분류하는 것인가? 이런 질문을 하는 것이 좋은 교육인 거 같은데 그런 질문과 생각은 점수화하기가 불편하다는 이유로 아직까지 학교 시험은 '음악의 어머니=헨델', '음악의 아버지=바흐'와 같은 류의 암기로 진행되고 있는 것 같다.

사실 이건 초등학생만의 문제가 아니다. 어떤 일을 하면 단답형의 답만 생각하는 것보다 왜 그런지 어떤 다른 의미를 찾을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좀 더 좋은 방법으로 실행할 수는 없는지 더 다양하고 풍부한 생각을 해야 한다. 생각은 습관처럼 몸에 익히는 것이다.

요즘처럼 정보가 많고 좋은 지식들이 널려있는 세상에서는 그것들을 무작위로 외우고 도입하는 것보다 왜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기 시작했는지에 대한 질문을 던져보는 것이 필요하다. 더욱이 변화가 많고 급속도로 다양해지는 우리의 생활을 보면 '왜 그렇지?'와 같은 질문을 하지 않으면 잘못된 결론에 빠질 수가 있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은 금년에는 부동산이 대폭락한다는 예측을 한다. 이런 예측을 들으며 '금년 부동산=대폭락'과 같은 결과만 외우면 바보다.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은 왜 그런 주장을 하는지, 그 근거는 무엇이고 그 사람의 논리가 과연 옳을까에 대한 판단은 내가 해야 한다. 만약에 그 주장과 근거에 내가 확실하게 동의한다면 그 주장은 옳은 것으로 받아들일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그런 주장의 판단과 근거에 내가 동의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거나 내가 확실하게 받아들일 수 없는 부분이 있다면 그런 주장에 대해서는 판단유보를 하는 것이 옳다.

**왜 그럴까? 어떻게 받아들일까?**

다시 말하지만, 결론만 외우는 것은 바보다. 세상에는 전혀 다른 결론의 올바른 충고들이 많다. 돌다리도 두들겨 보고 건너라는 속담이 있다. 옳은 말이다. 하지만 마케팅을 하는 사람이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서는 70%가 완성되면 일단 먼저 시장을 선점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한다. 돌다리를 두들겨 보고 건너려고 한다면 이미 시장에 후발주자가 되어 선점의 효과를 잃어버리는 것이다.

어떤 사람은 장점에 집중하라고 하고 어떤 사람은 약점을 보완하라고 한다. 이것은 상황에 따라 다른 것이다. 내가 결혼했을 때 어떤 선배가 나에게 이렇게 충고했다. "처갓집과 화장실은 멀어야 한다." 자신의 일을 매우 열심히 하는 사람이었지만, 보수적이며 사회성도 그렇게 높지 않은 선배였다. 그때도 나는 그런 말을 내 생활에 적용하고 싶지 않았다. 오히려 나는 그 선배에게 이렇게 말했다. "저희 집에 화장실은 방안에 있는데요."

자신의 성장과 발전을 위해서는 다른 사람의 충고를 잘 받아들이고 배워야 한다. 하지만 다른 사람들이 말하는 것을 결론만 외우고 따라 하는 것은 잘 배우는 것이 아니다. 왜 그렇게 말했을까? 그것을 나의 상황에 적용시키면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 이것을 한번 더 생각해야 한다. 그것이 더 잘 배우는 것이다. 그리고 그렇게 해야 남과 다른 생각, 다른 사람들의 주위를 집중시킬 수 있는 멋진 아이디어도 만들 수 있다.

박종하 대표

고려대를 졸업하고 KAIST에서 석·박사 학위를 받았다. 삼성전자 중앙연구소에서 근무했으며, 벤처기업 (주)엔파인을 창업해 경영한 바 있다. PSI컨설팅과 클릭컨설팅 등에서 창의력 컨설턴트로 일하면서 창의력과 이노베이션 등에 관한 집필과 칼럼 기고, 강의 활동 등을 해왔다. 현재 박종하창의력연구소를 설립해 활동 중이다. 「생각이 나를 바꾼다」, 「왜 나는 눈앞의 고릴라를 못 봤을까」, 「헤라클레이토스의 망치」, 「아주 특별한 성공의 태도」, 「아프리카에서 온 암소 9마리」 등의 저서가 있다.

## 2010 한국기후변화포럼

# “코펜하겐 당사국총회(COP15) 이후의 포스트교토 체제와 온실가스 감축 할당시스템 전망” 주제로 열려

1 2월 2일 프레스센터에서 한국기후변화 포럼이 열렸다
2,3 대회사 하는 김진선 강원지사
4 축사하고 있는 김형국 위원장
5 브라이언 맥도날드 주한 EU대표부 대사
6 기조연설하는 이만의 장관
7,8 행사 전 참가자들의 행사접수 모습

**강원도는 전 지구적인 문제인 지구온난화 등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지난 2월 2일 프레스센터 20층 국제회의장에서 ‘2010 한국기후변화포럼’을 개최하고 기후변화대응 리더로서의 역할을 자임하고 나섰다. 이는 강원도가 최근 태풍 루사 등의 자연재해를 겪으면서 기후변화의 심각성을 절감한 것은 물론 지구온난화가 강원도 관광산업의 주축인 스키장과 다양한 겨울축제 등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정리 · 정용달 팀장 (dal2020@kkhdi.or.kr)

### 반드시 극복해야 할 시대적 과제

환경부와 강원도가 주최하고 (재)한국기후변화대응연구센터가 주관한 이번 포럼은 각계 인사 5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코펜하겐 기후변화협약(UNFCCC) 제15차 당사국총회(COP15) 이후의 포스트교토 체제와 온실가스 감축 할당시스템의 전망”이라는 주제로 열렸으며, 인간개발연구원은 후원기관으로 행사에 참여했다.

개회식에서는 김진선 강원도지사(한국기후변화대응연구센터 이사장)의 대회사에 이어 김형국 녹색성장위원회 위원장이 축사가 있었다.

김진선 지사는 대회사를 통해 “지구온난화가 예상보다 빠르게 진행되면서 기후변화는 더 이상 선택의 문제가 아닌 반드시 극복해야 할 시대적 과제가 됐다”고 강조하고, “태풍 루사 등과 같은 큰 자연피해를 겪으면서 기후변화의 중요성을 인식하게 됐다”면서 “적극적인 기후변화 대응을 통해 녹색산업 성장의 견인차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고 밝혔다.

### 기후변화, 녹색성장의 새로운 기회

이어 브라이언 맥도날드 주한 EU 대표부 대사가 “포스트 교토체제를 향한 EU의 역할과 대응”이라는 주제로 특별강연에 나섰다. 맥도날드 대사는 강연에서 “코펜하겐에서 온난화는 섭씨 2도 범위 내에서 유지하자는 데 동의했으며, 선진국은 이를 이행하도록 노력하고, 개발도상국들은 국가적으로 적당한 완화 노력을 준비한다는데 동의했다”며 긍정적인 평가를 내린 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코펜하겐 협정은 법적 구속력이 결여되었다는 점에서 심각한 결함을 보인다”며 이것이 향후 중요한 결과를 초래할 것으로 전망했다. 한편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EU의 움직임에 대해서는 “어떤 상황에서도 EU는 지속적으로 교토의정서의 의무사항을 이행하도록 할 것”이라며, “탄소배출감축을 2020년까지 20%로 줄이기 위해 작년에 합의된 에너지와 기후변화에 대한 의무사항을 이행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만의 환경부 장관은 “코펜하겐 기후변화회의 결과와 향후 과제”라는 주제의 기조연설에서 “우리나라를 포함한 미국, EU, 중국, 인도 등 주요 25개국이 참여한 비공식 정상급 회의에서 ‘코펜하겐 합의문(Copenhagen Accord)’을 도출했다”고 밝히고, “우리나라는 이명박 대통령께서 12월 17일 기조

연설 및 EIG 그룹 대표 연설을 통해 '나부터 행동'을 강조하면서 중기감축목표를 설정하고, 2012년 제18차 당사국총회 유치 의사를 언급하는 등 활발한 환경외교를 펼쳤다"며 코펜하겐 회의결과를 전했다. 이와 함께 "2020년까지 세계 7대, 2050년까지 세계 5대 녹색강국에 진입하는 것이 대한민국의 목표"라며 이를 위한 향후 환경정책 추진과제 등을 소개했다.

1 내외귀빈 및 강연자들이 한자리에 모였다
2 1부 패널토론 모습
3 2부 패널토론 모습
4 주제발표하는 박흥경 팀장
5 주제발표하는 메리 게이드 회장
6 주제발표하는 스미 아키마사 교수
7 주제발표하는 노종환 대표
8 주제발표하는 이선화 부연구위원

**배출권 거래제 적극 대비해야**

1, 2부로 나눠 진행된 행사에서 박흥경 녹색성장위원회 협상FT 팀장(COP15 회의의 주요 결과)과 메리 게이드 미국 게이드환경그룹 회장(미국의 기후 정책과 제도 : 저탄소 경제로의 전환)이 1부 주제발표자로 나서 COP15 회의의 주요 결과 소개와 함께 한국의 대응방안, 그리고 미국의 기후변화대응 정책 등에 관해 소개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어서 김귀곤 서울대 생태조경학과 교수를 좌장으로 토니 클램슨 영국대사관 기후변화팀장, 랜디스 캔버그 바텔코리아 CTO, 김효은 외교통상부 기후변화과장이 패널로 참석한 가운데 주제발표에 대한 토론의 시간이 이어졌다.

2부 주제발표는 일본 동경대 지구지속발전연구소장인 스미 아키마사 교수(일본의 온실가스 감축할당 시스템과 배출권 거래제 전망), 노종환 한국탄소금융 대표(탄소배출권 거래제로 본 탄소시장 전망), 이선화 한국경제연구원 부연구위원(온실가스 감축 할당시스템의 해외 사례와 우리나라의 적용방안) 등 3명이 발제자로 나서 탄소배출권 거래제에 따른 한국과 일본의 대응전략을 살펴보고 탄소시장을 전망하는 시간을 가졌다.

주제발표가 끝난 후에는 손요환 고려대 환경생태공학부 교수를 좌장으로 박찬우 삼성지구환경연구소 수석연구원, 김정인 중앙대 산업경제학과 교수, 김호석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책임연구원 등이 패널로 참여해 주제발표에 대한 의견을 내고 참석자들과 토론의 시간을 가졌다.

이번 행사를 주관한 한국기후변화대응연구센터는 지난해 1월, 강원도가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전국에서 처음으로 만든 조직이며, 온실가스 배출 저감과 기후변화대응 프로그램 개발, 신재생에너지 개발 등 기후변화 관련 연구활동을 진행하고 있다.KHDI

4 5 6 7 8





# 인간개발연구원의 100년사(史)를 향하여

글 · 장만기 (인간개발연구원 회장)

캐나다 벤쿠버에서 열린 동계올림픽에서 역대 최고점수로 금메달을 획득하며 세계 피겨스케이팅의 여제(女帝)로 우뚝 선 김연아 선수는 '하면 된다'는 인간의 무한한 가능성을 온 세계에 극명하게 보여주었다. 이를 바라보면서 남한 5,000만, 북한 2,200만, 해외동포 800만 등 총 8,000만 민족이 하나가 되어 21세기 온 세계가 닮고 싶은 가장 아름답고 좋은 나라, 세계에 새로운 희망을 주는 선진국가로 성장해 가는 것을 생생하게 상상하면서 드린 매일의 기도가 응답받았다는 느낌을 갖는다.

국가발전의 견인차 역할을 하는 기업가와 경영자들과 함께 'Better People Better World'를 마음에 품고 인간중심의 기업문화를 세우기 위해 지난 35년간 쉬지 않고 인간개발경영자연구회를 개최해 지난 2월 4일 창립 35주년, 1631회 연구회를 개최하였다. 창립 이래 35년간 정치, 경제 등 다양한 분야에서 인간의 무한한 가능성에 도전하는 탁월한 리더십을 발휘한 지도자들과 함께 대화하는 모임으로 오늘에 이르고 있다. 'Better People Better World' 바로 우리 국민이 보다 더 좋은 사람이 되면 우리나라는 보다 더 좋은 나라가 될 수밖에 없다.

자본주의 경제체제에서 기업은 핵심이며 꽃이다. 나라가 잘 되려면 무엇보다 기업과 기업문화가 바로 서야 한다. 연구원은 좋은 기업을 세우려면 무엇보다 기업가나 CEO가 끊임없이 공부를 해야 한다는 신념으로 지난 35년간 줄곧 달려 왔다. 세계적인 기업가나 경영자들은 모두가 '기업은 바로 사람'이라는 진리를 깨닫고 인간에 대한 깊은 신뢰를 가지고 기업가정신과 리더십을 발휘해 왔다.

창립 35주년을 맞아 많은 언론에서 CEO를 비롯한 각계 지도자들의 아침공부문화를 통해 한국의 기업과 경제발전에서 연구원의 기여가 컸다고 평가해주고 있다. 인간개발에의 사명감과 책임감을 더욱 다지게 하는 고무적인 평가들이다.

인간개발연구원은 35주년을 기점으로 지금까지 해온 제도를 업그레이드시켜 IT, BT, NT를 넘어 이미 많은 학자들이 연구를 거듭해 온 PT(People Technology)를 실제 개인의 삶과 기업경영에 효과적으로 적용하도록 돕는 품격 있는 프로그램으로 창안하여 인류사에 있어 대전환기인 '지혜의 시대'를 꽃피우기 위해 착실히 준비할 것이다.

또한 고도의 지식, 정보, 과학기술이 변화를 가속화하는 미래사회를 내다보면서 변화의 중심에 서있는 무한한 가능성을 지닌 인간이 그 무한한 잠재력을 개발하도록 돕는데 모든 노력을 기울이고자 한다.

이를 위해 연구원은 지난 35년간의 노하우를 바탕으로 TPT재단을 창설해 'Total People Technology'를 실현해 나갈 재정력을 구축하고, 동시에 재단수익법인 TPT Global Solution 그룹을 만들어 참인간을 만드는 지혜의 시대를 함께 만들어나갈 기업이나 개인의 자본 참여를 통해 공개기업으로 키워나가고자 한다.

또한 인간개발경영자연구회를 TPT CEO포럼 체제로 발전시켜 전인적 리더를 만드는 일에 동참하시는 리더들이 거점이 되어 전국적, 세계적으로 확산시켜 나가고자 한다. TPT CEO 포럼에 참여한 CEO는 물론 각 분야 지도자들이 Total People Technology시대가 요구하는 리더십과 멘토십을 먼저 개발하고, 체계화된 리더십과 멘토십을 가정과 직장, 사회, 국가, 국제사회에서 발휘해 Better People Better World 정신을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고자 한다.

세계와 인류의 미래는 인간에 달려 있고, 인간의 미래는 참인간기술을 기초로 한 인간개발 교육에 달려 있음을 믿는다. 여기에 인간개발연구원이 새로운 TPT시대를 열어가고자 하는 비전이 있다. 세계의 미래는 바로 인간의 미래이다.KHDI

2010 조인스HR 신년세미나 중계

# “왜 사람중심 경영인가?” “기업의 실적은 사원의 행복감에 달려”

## 일본 미라이공업 야마다 회장 ‘사람중심경영’ 세미나서 강연

**21세기 지식 정보화 창조시대! CEO의 힘과 말보다는 이제 사원 한 사람 한 사람의 힘 즉, 사원력(社員力)이 강한 기업일수록 경쟁력 확보를 통해 장수기업, 강소(强小)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다. 이러한 우량기업의 공통점은 바로 수익 창출에만 급급하지 않고 직원들이 열정을 갖고 일에 몰입함으로써 행복을 느끼고 나아가 최적의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사람중심경영’으로의 조직시스템과 경영체질 개선에 집중했다는 것이다. 지난 1월 13일(수) ‘조인스HR 신년세미나’가 COEX 그랜드볼룸에서 열렸다. 이번 신년세미나는 치열한 경쟁 속에서 조직의 지속적 경쟁우위를 확보하기 위한 핵심 전략으로 ‘사람중심경영’이라는 화두를 가지고 한국과 일본의 사례를 비교해봄으로써 과연 우리 기업에게 적합한 ‘한국형 사람중심경영’의 필요성과 성공조건이 무엇인지를 고민해보는 시간이었다. 이에 정지환 감사나눔신문 기자의 기사 전문으로 이번 행사를 소개한다.**

글 · 정지환 감사나눔신문 기자 (lowsaejae@dreamwiz.com)

정년 70세, 전 직원 정규직, 연간 휴가 140일, 육아 휴직 3년, 하루 근로시간 7시간 15분, 잔업근무와 성과주의 엄금, 5년마다 전 직원 해외여행….

인사관리 토털서비스 기업인 조인스HR(대표이사 가재산)이 지난 1월 13일 코엑스(COEX) 그랜드볼룸에서 개최한 세미나에서 미라이공업의 야마다 아키오 창업주(78)가 자신의 회사를 소개하며 열거했던 내용이다.

야마다 창업주는 일본 언론에 의해 ‘유토피아 경영의 화신’(아사히신문), ‘일본 최고의 명물남’(주간 다이아몬드)으로 평가받고 있는 인물이다. 그뿐만이 아니다. 영국의 파이낸셜타임스는 그를 ‘2005년 위대한 명경영인 50인’에 선정하기도 했다.

그렇다면 1965년 고작 4명의 직원으로 출발했던 이 작은 기업이 직원수 783명, 매출액 750만 엔의 중견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었던 비결은 무엇일까?

“미라이공업이 창업할 당시만 해도 주변에는 마쓰시타, 미쯔비시, 도시바, 내쇼널 등 거대한 경쟁자들이 있었다. 기존의 관습과 방식을 그대로 따른다면 애초부터 경쟁 자체가 불가능한 상황이었다. 그래서 우리는 고객인 건축회사나 기술자가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기존의 기구나 부품과는 ‘조금 다른’ 아이디어 제품 제작에 심혈을 기울였는데, 그 제품은 오로지 미라이공업에서만 구할 수 있었다.”

야마다 창업주가 착안한 것은 ‘차별화’였다. 이 전략의 채택은 제품 제작에만 국한되지 않았다. 회사를 경영하면서 남들이 안 하는 것만 일부러 추진하거나 남보다 한발 앞서 달려감으로써 단골 고객과 경쟁력을 조금씩 확보해 나갔다. 사원을 무조건 신뢰하고 모티베이션의 당근과 모찌를 지속적으로 제공함으로써 의욕을 고취하고 창의성 발휘를 유도하는 전략도 병행했다.

“직원을 동물이 아니라 인간으로 보는 관점이 중요하다. 그들로 하여금 적어도 하루 4시간은 충분히 쉬면서 회사 일을 모두 잊고 오로지 자기계발을 위해 사용하도록 배려하자 놀라운 성과가 나오기 시작했다. 미라이공업이 잔업이나 야근을 철저히 배격하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다.”

일본 한천 시장의 80%와 세계 시장 20%를 점유하고 있는 ‘히든 챔피온’ 이나식품공업도 “기업의 목표는 사원의 행복에 있다”고 믿는 회사이다. 그래서 처음부터 대기업으로 성장하지 않는다고 공개선언하고 회사의 영속을 지향하는 ‘나이테 경영’을 추구한다. 이를 위해 △무리한 성장을 하지 않는다 △싸다는 이유만으로 거래처를 바꾸지 않는다 △정리해고를 하지 않는다 △과하게 만들지 않고 팔지 않는다 등의 경영지침까지 만들었다.

쓰가모토 히로시 회장이 금고 안에 보관하고 있는 가장 큰 재산은 회사 초창기 직원들의 얼굴을 찍어 놓은 낡은 사진 앨범이라고 한다. 여기에는 당시 직원들이 고객에게 친필로 작성한 감사편지도 들어 있다. 그런데 사진에 들어 있는 직원들의 표정은 하나같이 활짝 웃는 모습이다. 히로시 회장은 지금도 직원을 행복하게 만드는 것이 회사가 존재하는 이유라고 믿는다.

한편 이날 세미나에선 한국 사례와 ‘사람중심경영’의 이론적 배경도 소개됐다. 김상도 파워넷 대표가 ‘한국의 일본전산 꿈꾸는 파워넷’이라는 주제로, 조영호 아주대 경영대 교수가 ‘한국형 사람중심 경영의 오늘과 내일’이라는 주제로 강의를 진행했다. 가재산 조인스HR 대표는 “치열한 경쟁 속에서 조직의 지속적 경쟁우위를 확보하기 위한 핵심 전략인 ‘사람중심경영’의 성공 포인트와 관련해 일본의 미라이공업과 한국의 파워넷 사례를 소개하고, 한국형 ‘사람중심경영’의 필요성과 성공조건을 찾아보기 위해 세미나를 열었다”고 말했다.

### “장수기업 대부분 사람중심경영”

**- 세미나 주최한 가재산 조인스HR 대표이사 -**

“일본에는 100년 넘은 기업이 5만3000개나 있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200년 넘은 기업이 3100개, 1000년 넘은 기업도 7개나 됩니다. 반면에 한국에는 100년 넘은 기업이 두산그룹, 동화약품밖에 없습니다.”

가재산 조인스HR 대표의 새해 화두는 ‘사람중심 경영’이다. 세계적인 장수기업의 대다수가 사람중심 경영을 실천하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한 그는 “회사가 금전적 보상은 물론 배려와 존경을 통해 임직원에게 자부심을 제공해야 생산성이 향상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사람은 봉급만 주면 30%의 능력을, 남보다 더 주면 60%를 발휘합니다. 그런데 칭찬을 해주면 80%를, 신뢰를 주면 120%를 발휘하게 되지요. 직원들이 주인정신을 가지고 최적의 성과를 낼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무엇보다 필요합니다.”

‘한국형 팀제’를 주창해온 가재산 대표는 서강대 경영학과를 졸업하고 삼성물산에 입사한 이래 25년 동안 회장 비서실 인사팀 등 삼성의 여러 계열사에서 인사, 교육, 혁신 등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했다. 〈성공에너지 어닝 파워〉(로그인), 〈중소기업, 인재가 희망이다〉(삼성경제연구소), 〈10년 후, 무엇을 먹고 살 것인가?〉(쌤앤파커스) 등의 저서가 있다.

# 전문가도 업그레이드해야 살아남는다

글 · 이보규 (21세기사회발전연구소 소장)

서울시립대 행정학 석사를 거쳐 서울대 행정대학원을 수료했다. 서울시 국장 및 한강사업본부장을 역임했으며, 호서대 초빙교수, 용인대 산업정보대학 교수를 역임하고 현재 동서울대 교양과 외래교수로도 활동 중이다. 21세기사회발전연구소장으로 현재 공공기관, 기업체, 대학 등에서 자기성찰에서 얻은 경험과 신념을 바탕으로 삶의 의미와 지혜를 일깨우는 강연활동을 펼치고 있다.

자기 위치에서 경쟁력을 가지려면 그 분야의 전문가가 되어야 한다. 사람이 살아가기 위해서는 일을 해야 하고 그 하는 일이 직업이다. 많은 사람이 동시에 살아가고 있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직업을 가지고 서로 경쟁하며 살고 있다.

우리사회에서 존경받는 사람들은 모두 그 분야의 전문가로서 자리매김한 사람들이다. 그러나 인기인이나 역사 속 인물도 시대에 따라 평가를 달리한다. 다만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그 사람의 평가는 시대와 순간에 일치하는 것이다. 다시 재평가되고 어제까지 스타였지만 오늘은 아니고, 오늘의 스타라도 내일을 보장받지 못한다. 그 전문지식이나 기술, 기능이 있어도 모두 그 위치나 지위를 유지하기가 그렇게 쉽지 않다.

경영의 대가 피터 드러커는 "미래 경쟁사회에서 정상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10년 또는 15년에 한 번씩 전문분야를 바꾸거나 업그레이드해야 한다"고 했다. 이 세상의 패러다임은 늘 바뀐다.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정상이고 아무도 흉내낼 수 없다고 해도 그것은 그 순간에만 존재한다는 것이다. 축구의 박지성 선수가 멀티플레이어로서 수비나 공격 어느 자리에 배치해도 자기 몫을 해내는 훌륭한 선수지만 체력에는 한계가 있다. 그 한계를 극복하지 못한다면 어느 날 운동장에서 그의 모습을 볼 수 없을 것이다.

자연의 법칙이 그렇다. 다만 강조하고자 하는 요점은 점점 늘어나는 수명의 연장은 사회 활동의 범위를 키우고 이를 더 오래 지속시켜주길 원한다는 점이다. 계속 환영받고 그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여기에 대비해야 한다. 직장에서도 구조조정이나 감원 대상에서 열외가 되려면 노력해야 한다.

야간 고교 출신인 내가 공채를 거쳐 공직자가 되어 거기에 만족하고 야간대학과 대학원을 다니지 않고 안주했다면 과연 오늘의 위치에 설 수 있었을까? 말단 공직에서 승진을 거듭해서 서울시산하 기관장을 거쳐 정년퇴임 후 대학에서 강의를 시작한 것이 8년 전의 일이다. 그 동안 강의를 할 수 있었던 것은 계속 그 분야의 공부를 했기에 가능했다.

또한 특강 강사로 전국을 다니며 강의를 하는 것도 타고난 선천적인 자질이 아니라, 후천적인 노력으로 연구하고 훈련했기에 가능하다고 생각한다. 끊임없이 공부하고 강의 기법을 배우고, 인적 네트워크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단 한 건의 강의요청도 기대할 수 없다.

식사시간이면 고객이 줄을 서서 기다려야 겨우 자리를 차지하던 유명한 식당이 어느 날 사라진다. 이유는 간단하다. 옛날의 단골손님들은 늙고, 새로운 젊은이의 취향을 파악하지 못한 채 옛날 메뉴와 조리방법만 고집하면 점차 손님은 줄고, 업소로써 이익을 창출하지 못하면 결국 문을 닫을 수밖에 도리가 없다.

그와 같은 예는 얼마든지 있다. 디지털사회가 아날로그사회를 몰아낸다. 진리는 변하지 않는 것이라고 하지만 역설적으로 진리란 변하는 것이다. 아무리 전문지식이라도 생성, 획득, 활용, 확산, 저장, 갱신을 거듭해야 그 자리를 유지할 수 있다. 잘 나가던 사람이 실업자 신세로 전락하고 번창하던 회사가 문을 닫는다. 변화에 대응하지 못하고 새로운 아이템을 업그레이드하지 못하면 그 순간이 끝이다. 개인이나 인기연예인이나 운동선수나 식당이나 회사나 정당이나 정치인이나 모두 마찬가지이다.

오늘에 안주하려고 혁신을 기피하거나 새로운 패러다임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변화를 도모하지 못하면 그것으로 끝, 더 이상은 기대할 수 없다. 강사들도 마찬가지이다. 앵무새처럼 조잘대다가 머릿속에 든 지식이 바닥나면 그 강의를 누가 들으려고 하겠는가? 이것은 나 자신에 대한 다짐이다. 대비책은 오로지 계속 업그레이드하는 길밖에 다른 방법이 없다는 단순 논리를 어느 분야의 누구든 받아들이고 실행해야 생존할 수 있다. KHDI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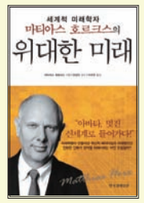




# Book & Culture

**사장의 노트** | 하세가와 가즈히로 / 이정환 역 / 서울문화사 / 194쪽

**실력 있는 리더와 유능한 사원을 위한 142가지 키워드!** 5천억 적자를 안고 있던 회사를 1년만에 흑자로 전환시켜 일본 경제계를 떠들썩하게 했던 (주)니콘 에시롤의 대표이사 하세가와 가즈히로. 일본의 기업회생 전문가인 저자의 노트에서 뽑은, 적자회사를 흑자로 만든 비결 142가지를 담은 책이다. 출간 즉시 일본 아마존 베스트셀러에 진입했으며, 출간 3개월만에 30만부가 판매되었다.



**위대한 미래** | 마티아스 호르크스 / 이수역역, 전상인 감수 / 한국경제신문사 / 528쪽

**미래는 사람들의 행동과 합의를 통해 발전한다**

세계적인 미래학자인 저자는 인간의 탄생부터 죽음에 이르는 과정에서 배우고, 느끼고, 경험하는 모든 테마를 중심으로 우리가 어디에 있으며 어떤 것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우리의 여행이 어디로 향할지를 보여준다. 소설적 구성을 바탕으로 한 편의 미래 영화를 보는 느낌이지만, 그 안에서 미래사회의 트렌드와 펙트를 명확하게 뽑아내고 있다.

**이 장면을 아시나요 1,2** | 김동규, 정혜진 / 생각을담는집 / 347쪽

**바리톤 김동규와 함께하면 오페라, 참 쉽고 재미있다!**

CBS FM '아름다운 당신에게'의 진행자로서 클래식을 대중화하는 데 힘쓰고 있는 오페라 가수 김동규가 '이 장면을 아시나요'라는 코너를 통해 선보인 30여 편의 오페라 작품을 쉽고 재미있게 소개했다. 총 2권으로 구성된 이 책은 주옥같은 오페라의 가사가 어떤 내용인지, 무슨 상황에서 부른 노래인지, 관련 사진과 함께 소개한다.

**청춘, 거리에서 세상의 답을 묻다** | 수리 / 무한 / 256쪽

**이 시대 청춘들의 고단한 삶을 어루만지다**

이 책에 소개된 글들은 세상에서 가장 짧은 시라고 불리는 '하이쿠'이다. 저자는 간결한 글자만으로 누구나 한번쯤은 느꼈을 혹은 느꼈지만 표현할 수 없었던 찰나의 느낌과 숨결까지 전달한다. 이 책을 읽고 난 뒤에는 감동과 공감을 끌어내는데 많은 글자나 화려한 수식어가 오히려 사치스럽게 느껴질 것이다.

### 최초의 오리지날 아이리쉬 댄스 '리버댄스'

리버댄스는 1995년 2월 초연을 시작으로 런던, 뉴욕, 파리, 몬트리올을 거쳐 북미, 유럽, 아시아 전역에서 공연을 이어가고 있다. 15년간 전 세계 약 350개 이상의 공연장에서 2,200만 관객을 동원하여 10,000회가 넘는 공연을 선보여온 세계적인 작품이다.

- **일정 : 3월3일(수) ~ 3월 14일(일)까지**
- **장소 : 세종문화회관 대극장**
- **문의 : 02)541-6235**

### 수지오페라단의 '나비부인'

연극 '나비부인'이 원작인 오페라 '나비부인'은 푸치니가 작곡을 하는 와중에 순종적이며 청순가련한 여인인 나비부인을 생각하며 눈물을 흘릴 정도로 사랑한 작품이다. '나비부인'에서는 첫사랑의 설레임, 이별의 아픔, 그리움과 절망의 애절한 이야기들이 펼쳐진다.

- **일정 : 3월25일(목) ~ 3월 28일(일)까지**
- **장소 : 예술의전당 오페라극장**
- **문의 : 02)581-5404, 02)3211-1669**

### 장영주 개인전 '한국의 氣'

장영주는 추상주의자로서 활력과 강한 에너지를 가지고 있다. 장영주의 페인팅 기법은 솟구쳐 나오는 느낌, 내면의 세계에서 분출하는 강력한 붓 터치와 다양한 표현기법을 추구한다. 다이내믹한 움직임과 정적인 구성이 인상적이며 강력한 붓 터치와 이를 둘러싼 여백처리가 그녀 작품의 매력을 보여준다.

- **일정 : 3월21일(일) ~ 3월 31일(수)까지**
- **장소 : 예술의전당 한가람미술관 제4전시관**
- **문의 : 011-9742-1057**

# 회원 & 연구원 소식

## 회원소식

■ **김진희 이소도 대표**는 MBC와 공동으로 녹색성장 특별기획다큐멘터리 〈숨은 그림찾기 소나무 부자데(Vu Ja Dei)〉를 제작하였다. 우리 소나무를 감성적으로 뿐만 아니라 지성적으로 깊이 이해할 수 있는 본 프로그램은 MBC TV를 통해 지난 2월 23일 1부에 이어 25일 2, 3부가 연속 방송되었다. 인터넷 imbc 홈페이지(http://www.imbc.com)를 통해 다시 볼 수 있다.

■ **장영주 화가**는 오는 3월 21일부터 예술의전당 내 한가람미술관에서 개인전을 개최한다.
- 전시기간 : 2010년 3월 21일(일) ~ 31일(수)
- 장소 : 예술의전당 내 한가람미술관 제4전시관

■ **이승한 홈플러스그룹 회장**은 지난 1월 27일 한국경제신문이 주최한 '2010 인재경영대상'에서 최고경영자부분 대상을 수상하였다.

■ **윤용로 기업은행 행장**은 지난 1월 26일 그랜드힐튼 호텔에서 전국 600여 영업점장을 포함, 900여 임직원들이 모인 가운데 '2010년 상반기 전국 영업점장 회의'를 개최했다. 기업은행은 같은 달 27일, 한국경제신문사 주최의 '2010 인재경영대상'에서 기업부분 대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 **바이오 전문기업 ㈜서린바이오사이언스 황을문 사장**은 지난 2월 3일 코엑스 인터컨티넨탈호텔에서 열린 2010년 IMI(전경련 국제경영원) 경영대상 시상식에서 지식경영부문 대상을 수상하였다. 황 회장은 그동안 지식정보화시대에 대응한 효율적 지식기반 경영시스템 구축 및 성과를 인정받아 수상하게 되었다.

■ **KB금융그룹**은 고객의 계열사 거래실적을 통합해 고객 등급을 산정한 뒤 우대 서비스를 차등 제공하는 '통합 우대고객 제도'를 2월 10일부터 시행한다. 이 제도는 **KB생명(사장 김석남)**, 국민은행, KB투자증권 등과 거래하는 고객의 거래실적을 합산해 등급을 부여하는 것으로 그룹 내 계열사와 거래하는 고객은 모든 거래실적을 인정받게 된다.

■ **이심 주택문화사 회장**은 지난 2월 18일(목) 대한노인회 중앙회관에서 열린 제15대 **대한노인회 중앙회장 선거에서 당선**되었다. 이로써 이심 회장은 향후 4년간 대한노인회를 이끌게 됐다. 이심 회장은 당선 인사를 통해 "어르신들과 회원을 모시고 받드는 회장이 되겠다"고 밝혔다.

■ **사회복지공동모금회(회장 윤병철)**는 대지진의 재앙을 겪고 있는 아이티에 미화 50만 달러를 긴급지원하였다. 이번 지원은 국민성금으로 조성된 해외 긴급구호 지원사업에서 이루어지며, 현재 진행 중인 국민들의 모금액은 추가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 **성동구(구청장 이호조)**가 한국공공디자인 지역지원재단(행정안전부 재단법인)이 주최하고 2009 국제공공디자인대상(IPDA) 조직위원회가 주관한 '2009 국제공공디자인대상' 공공부문에서 영예의 그랑프리(Grand Prix)상을 수상하였다.

■ **조인스HR(대표이사 가재산)**은 오는 3월 16일에 '성과 부진자 관리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주제로 춘계세미나를 개최한다.
- 일시 : 2010년 3월 16일(화) 09:30 ~17:30
- 장소 : 한국과학기술회관 소회의실
- 참가비 : 1인 18만원 / 2인 15만원(중식과 교재 제공)
- 문의처 : Tel. 02-890-0840 / 02-890-0801

## 사무실이전 안내

■ **디프로텍(회장 고영하)**은 아래와 같이 사무실을 이전였으며, 전화번호 등의 연락처도 변경되었습니다.
- 이전주소 : 서울 광진구 구의동 546-4 프라임센터14층
- 변경전화 : 02-3424-2803 / 팩스 : 02-3424-2830

## 소모임소식

■ **이종기업동우회1그룹(회장 유상옥 / 총무 고지석)**은 지난 2월 22일 오후 7시 '雪國'에서 제271차 모임을 가졌다. 회원들은 저녁식사를 겸한 자리에서 근황을 나누고 친선을 도모하는 시간을 가졌다.
- 문의 : 고지석 세무사사무소 김성철(Tel. 02-598-3747)

■ **인목회(회장 방기봉 / 총무 한종덕)**는 지난 2월 25일 저녁 6시 30분 장충동 '대장금'에서 제63차 정기총회를 갖고 임원개선 및 결산보고를 마치고 회원증강에 관한 의견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 문의 : 총무 한종덕(H.P. 018-203-9585)

■ **책글쓰기를 위한 세이클럽 (회장 김창송 / 총무 이계옥)**은 지난 2월 8일 저녁 역삼동 큐브 아고라에서 2월 정기모임을 가졌다. 19명의 회원들이 참석한 이번 모임은 손광성 수필가의 '수필쓰기 수업'과 회원들간의 토론시간으로 이어졌으며, 수업 시간 내내 진지한 분위기와 회원들의 열정이 가득한 시간이었다. 오는 3월 모임은 아래와 같이 가질 예정이다.

- 일시 : 2010년 3월 8일(월) 오후 6시 30분
- 장소 : 문학의 집 · 서울
- 문의 : 정용달 팀장(Tel. 02-445-1949)

■ **다락회(회장 정태익 / 총무 이종원)**는 지난 1월 12일 옛날민속집 1호점에서 신년하례모임을 가졌다. 3월 모임은 부부동반으로 마련한 자리로 아래와 같이 개최할 예정이며, 많은 회원들이 참석해 유익한 정보와 즐거움을 나누시기 바란다.
- 일시 : 2010년 3월 9일(화) 오후 6시 30분(부부동반)
- 장소 : 더 클래식500(스타시티-건대역 3층 레스토랑)
  Tel. 02-2218-5711
- 행사 : 정태익 회장(전 러시아 대사)의
  "국제 정세와 외교사 이야기" & 누드 크로키(Nude Croquis)
  예술가 김아원 작가와의 만남
- 연락처 : 총무 이종원(H.P. 010-5306-8587)

■ **화목회(회장 황석희 / 총무 홍승국)**는 지난 1월 19일 개최된 정기총회에서 황석희 회장의 연임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황석희 회장은 8년째 화목회를 이끌게 되었다. 총무 이재옥 중앙에프앤에스(주) 사장은 부회장으로 선임되었으며, 신임 총무는 홍승국 에버그린MST 사장, 감사는 양종관 남서울대 교수가 선임되어 본 모임 운영을 맡게 되었다. 3월 모임은 아래와 같이 가질 예정이다.
- 일시 : 2010년 3월 16일(화) 오후 6시
- 장소 : 에버그린MST(주)
  (서울 광진구 자양4동 8-3 상록빌딩 2층, Tel. 02-4600-501)
- 연락처 : 총무 홍승국(H.P. 010-5305-3378)

■ **Young Ceo Forum(회장 정이안 / 총무 김진욱)** 지난 2월 모임에서는 맛있는 아르헨티나 음식을 즐긴 후 아르헨티나 현지 무용수의 탱고 춤 공연을 감상하고 탱고의 기본스텝을 배워보는 즐거운 시간을 가졌다. 오는 3월 모임은 장영주 화가께서 예술의전당에서 개인전을 개최하시어 특별히 YCF회원들을 초대한다.
- 일시 : 2010년 3월 23일(화) 오후 7시
- 장소 : 예술의전당 내 한가람미술관 4전시관
- 문의 : 정성숙 과장 (Tel. 070-7500-9508)

■ **人經會(회장 이용국 / 총무 이종원)**는 2010년도 시즌 OPEN '3월 정기모임'을 아래와 같이 개최한다. 인경회 회원들은 적극적으로 참석하시어 골프를 통한 즐거운 시간을 가져보시기 바란다.
- 일시 : 2010년 3월 23일(화) 오전 5시 40분
- 장소 : 한양 CC
- 참석 : 인경회 정회원 및 참석 희망자
- 참석여부 : 총무 이종원(H.P. 010-5306-8587)

## 연구원소식

■ **인간개발연구원 홈페이지 새 단장**

본원은 회원들에게 보다 많은 정보와 편리함을 제공하고자 홈페이지를 리뉴얼하였다. 개편된 홈페이지는 CEO세미나, 교육컨설팅, PR라이브러리, 회원광장 등이 마련되어 다양한 정보제공뿐만 아니라 보다 편리하게 메뉴에 접근할 수 있게 되었다. 회원 여러분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린다.

• http://www.khdi.or.kr • 문의 : 02-2203-3500

■ **본원 소모임 운영위원회의 개최**

35년이란 역사와 함께 해온 회원들께 발전된 회원서비스를 제공하고 활발한 소모임을 운영하기 위한 개선방안을 등을 주요의제로 지난 1월 7일 롯데호텔 3층 토파즈룸에서 소모임 운영위원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회의에서 각 소모임의 운영진들은 소모임 운영상의 애로점을 토로하고 향후 회원증강 및 통합행사 등 발전방향 등에 관한 의견을 나누었다. 이 날 회의에서 모아진 의견들은 앞으로 소모임을 운영하는데 적극 반영해 나갈 예정이다.

■ **본원 후원 '2010한국기후변화포럼' 개최**

지난 2월 2일 환경부와 강원도청이 주최하고 한국기후변화 대응연구센터가 주관, 인간개발연구원이 후원사로서 기획진행한 2010한국기후변화포럼이 프레스센터 국제회의장에서 개최되었다. 이번 포럼은 이만의 환경부 장관, 김형국 녹색성장위원회 위원장, 김진선 강원지사, 브라이언 주한EU 대사, 메리 게이드 美 게이드환경그룹 회장, 스미 아키마사 일본 동경대 교수 등 17명의 국내외 전문가들이 참석해 주제발표와 토론을 가졌으며, 정부기관, 기업, 지자체 등에서 500여 명이 참석해 성황리에 개최되었다.

■ **장만기 회장 'KBS 라디오'방송**

1970년대 중반 인간경영이나 지식경영이란 말이 생소하던 때, 인간개발연구원을 창립해 35년간 대한민국 기업가와 CEO들의 학습의 장을 마련해온 인간개발연구원의 장만기 회장이 KBS1라디오에 출연해 지난 35년간 '인간개발'에 매진해온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 KBS 라디오 〈나의 삶 나의 보람〉
· 채널 : KBS 1라디오 한민족방송 AM 972KHz
· 방송일 : 2010년 2월 15일(월), 16일(화) 오전 2:20~3:00
• KBS1라디오 〈집중인터뷰〉
· 채널 : KBS1라디오 FM97.3
· 방송일 : 2010년 2월 23일(화) 오후 2:30~2:58
· 홈페이지 : www.kbs.co.kr/radio/1radio/interview/program/program.html

■ **2010년 인간개발연구원 정기이사회**

2009년 사업결과와 2010년 사업계획(안)에 대한 보고와 결의에 대한 2010년 정기이사회가 아래와 같이 개최한다.

• 일시 : 2010년 3월 9일(화) 오전 7시 ~ 9시
• 장소 : 롯데호텔 36층 버클리룸(소공동)

■ **2010년 인간개발연구원 정기총회**

본원은 2009년 사업결과와 2010년 사업계획(안)의 보고와 결의에 대한 2010년 정기총회를 아래와 같이 제1636회 인간개발경영자연구회와 겸하여 롯데호텔 사파이어볼룸에서 가진다.

• 일시 : 2010년 3월 11일(목) 오전 7시 ~ 9시
※ 제1636회 인간개발경영자연구회와 겸함
• 장소 : 롯데호텔 3층 사파이어볼룸(소공동)

## 신규회원

■ **김석남 KB생명 CEO(법인회원)**
· 전화 : 02-398-6801
· 주소 : 서울 용산구 한강로3가 삼구빌딩 2층
· 홈페이지 : http://www.kbli.co.kr
· 추천 : 가재산 조인스HR(주) 대표이사

■ **가재산 조인HR(주) 대표이사(법인회원)**
· 전화 : 02-890-0801 / 팩스 : 02-890-0857
· 주소 : 서울 구로구 구로동 222-12 마리오타워 1007
· 홈페이지 : http://www.joinshr.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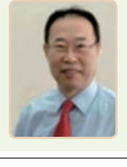
■ **이승한 삼성테스코 회장 (법인회원)**
· 전화 : 02-3459-8001 / 팩스 : 02-3459-8003
· 주소 : 서울 강남구 역삼동 701-2 삼정개발빌딩 14층
· 업종 : 유통
· 홈페이지 : http://www.homeplus.co.kr
· 추천 : 양병무 서울사이버 부총장

■ **유재용 에프앤디파트너 대표이사(개인회원)**
· 전화 : 02-581-0919 / 팩스 : 02-586-0931
· 주소 : 서울시 서초구 방배동 449-4 AP빌딩 3층
· 홈페이지 : http://www.wara-wara.co.kr
· 추천 : 이충희 (주)듀오 사장

■ **조동호 (주)헤럴드 회장(개인회원)**
· 전화 : 031-919-6422~4 / 팩스 : 031-919-6425
· 주소 :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 750 일산삼성스위트1206
· 업종 : 기술용역 외

■ **박이락 (주)성한트랜스텍 대표이사(개인회원)**
· 전화 : 02-352-8414 / 팩스 : 02-352-8416
· 주소 : 서울 은평구 구산동 25-63 성한빌딩 4층
· 업종 : 전자부품
· 홈페이지 : http://www.transteks.com
· 추천 : 차진영 성부트레이딩(주) 사장

■ **홍동의 뉴월드영상에듀 회장(개인회원)**
· 전화 : 1599-0405 / 팩스 : 02-413-1810
· 주소 : 서울시 송파구 방이동 67번지 오션B/D 2층
· 업종 : 교육
· 홈페이지 : http://www.newedu.co.kr



■ **최진석 동성홀딩스 부회장 (개인회원)**
· 전화 : 02-2136-4212 / 팩스 : 02-564-4223
· 주소 :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677-25 큰길타워 8층
· 홈페이지 : http://www.dongsungholdings.com

■ **추민수 (주)흥진플러스 대표이사(개인회원)**
· 전화 : 032-613-0335 / 팩스 : 032-613-7727
· 주소 : 경기 부천시 원미구 춘의동 200-1 춘의테크노파크 102동 1310호
· 업종 : 의류 제조
· 홈페이지 : http://www.koreandress.co.kr
· 추천 : 최병조 기업은행 본부장

## 창립기념일을 축하드립니다

| 회사명 | 이름 | 직함 | 창립기념일 |
|---|---|---|---|
| 대주회계법인 | 백진환 | 공인회계사 | 3월 1일 |
| 성원교역(주) | 김창송 | 회장 | 3월 1일 |
| (주)제이에스엔지니어링 | 정창현 | 사장 | 3월 3일 |
| 한마음특허사무소 | 구교근 | 소장 | 3월 5일 |
| 꿈 · 희망 · 미래 재단 | 김윤종 | 이사장 | 3월 7일 |
| 한국씨름연맹 | 김재기 | 회장 | 3월 10일 |
| 중앙에프앤에스(주) | 이재옥 | 대표이사 | 3월 15일 |
| 협운해운(주) | 마상곤 | 회장 | 3월 19일 |
| 유진기업(주) | 유재필 | 회장 | 3월 22일 |
| (주)일삼 | 정우철 | 사장 | 3월 25일 |
| LG엔시스 | 정태수 | 대표이사 | 3월 27일 |
| 정경연 이안 한의원 | 정경연 | 원장 | 4월 1일 |
| 서창전기 | 윤계웅 | 회장 | 4월 1일 |
| 서린바이오사이언스 | 황을문 | 대표이사장 | 4월 2일 |
| 제천정신병원 | 오만식 | 이사장 | 4월 6일 |
| (주)한국크리버 | 남재현 | 회장 | 4월 8일 |
| (주)듀오 | 이충희 | 사장 | 4월 10일 |
| 성원개발(주) | 최우영 | 사장 | 4월 13일 |
| (주)도드람B&F | 김대성 | 고문 | 4월 17일 |
| 덕지산업개발(주) | 배승호 | 회장 | 4월 17일 |
| 전능IT(주) | 박용팔 | 회장 | 4월 19일 |
| 영동농장 | 김용복 | 회장 | 4월 20일 |
| 삼성석유화학 | 허태학 | 사장 | 4월 29일 |

# 2010 슈퍼 모멘텀 장대환 매일경제신문 회장

## 제106회 육군본부 〈선진육군 아카데미〉

**1월 20일(수)**

**2006년 4월에 개설된 '선진육군 아카데미'는 본원과 육군본부(육군참모총장 임충빈)가 '변화와 혁신'을 모토로 육군 간부들을 대상으로 시작한 프로그램입니다. 선진육군 아카데미는 창의적 인적자원개발의 필요성과 군 복무자의 능력 향상을 통한 국가경쟁력 제고 등 정보화를 통해 학습하는 병영문화를 조성하고, 육군 간부들의 '변화 트렌드' 인식에 활력소 역할을 하는 등 명품강연으로 자리잡고 있습니다. 이번 명사초청특강에서는 지난 1월 20일, 106회 아카데미에서 '2010 슈퍼 모멘텀'을 주제로 강연해주신 장대환 매일경제신문 회장의 강연을 소개하는 지면을 마련하였습니다.**

정리 · 정용달 팀장 (dal2020@khdi.or.kr)

오늘은 세계 경제의 흐름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대응해야할지를 살펴보겠다. 작년에 많은 일들이 일어났는데, 올해 역시 성장과 도전의 한 해가 될 것이다.

### 2009 세계정세의 변화

일단 정치체제에 많은 변화가 있었다. 일본은 하토야마 정권이 등장했고, 미국은 하이브리드 대통령인 오바마 정권이 등장했다. 중국은 G2라는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미국과 맞먹는 슈퍼파워를 과시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가 작년 가장 신경 썼던 문제는 금융위기다. 금융위기는 본질적으로 인간의 끝없는 욕심, 욕망, 욕구 때문에 일어난 위기다. 이런 것이 몇 십 년 동안 버블을 만들어서 우리를 당황하게 만드는 사건이 벌어졌다.

국내적으로는 세종시 문제가 아직까지 해결되지 않고 있다. 행정은 국가가 국민들에게 주는 서비스이기 때문에 그 서비스센터를 국민들이 가장 많이 사는 곳에 두는 것이 옳지 않을까 생각한다.

우리는 백조는 모두 하얗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까만 백조 한 마리가 나타났다. 이것이 블랙스완(Black Swan) 스토리인데, 지금처럼 전혀 예기치 않은 블랙스완이 나타났을 때 우리는 굉장히 당황하게 된다. 작년 금융위기가 우리에게는 블랙스완이었다.

그리고 북한의 화폐개혁의 후폭풍이 올해 어떻게 일어날지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야 한다. 작년에 전 세계 국가들이 돈을 많이 풀었다. 그 풀린 돈을 언제 회수할 것인가 하는 것이 올해의 출구전략이 될 것이다. 그리고 달러의 향방, 환율의 변화가 우리의 마음을 졸이는 문제가 될 것이다. 한편으로는 녹색성장이 앞으로 우리를 먹여 살릴 수 있을지 없을지 하는 것이 중요한 문제가 되고 있다.

### 다보스포럼의 핫이슈

지난 1월말, 스위스 다보스포럼에 다녀왔는데, 세계를 움직이는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은 이렇다.

먼저 세상이 워낙 많이 바뀌어서 우리가 새로운 기준을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다. 과거에 5%씩 성장하던 나라들이 앞으로는 2~3%밖에 성장하지 못할 것이다. 이러한 새로운 기준에 대해서 세계 석학들이 많은 연구를 할 것이다.

버블에 대한 우려도 있다. 서울은 지금 전세값이 올라가고 있다. 그동안 강남에는 집을 못 짓게 했고, 또 세금 때문에 이사도 못 갔다. 자유롭게 경제활동을 못했기 때문에 이런 문제를 어떻게 풀어갈 것인지가 중요하다.

그리고 자본주의도 공산주의처럼 붕괴하는 것이 아니냐, 혹은 어떻게 하면 자본주의를 새롭게 만들 것인가 하는 고민을 하고 있다. 하지만 공산주의나 자본주의는 이제 한물 간 것으로 봐야 한다. 앞으로 우리는 포퓰리즘(populism)을 걱정해야 한다. 의사결정을 할 때, 특히 정부가 포퓰리즘을 배제하고 의사결정을 해야 나라가 제대로 발전할 수 있을 것이다.

2010년 우리를 위협할 가장 큰 문제는 바로 자산 가치의 폭락이다. 상하이나 홍콩에서 부동산 폭락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 또한 정부의 재정 적자, 그리고 중국이 계속해서 성장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걱정도 있다. 중국은 올해도 11%의 경제성장률을 예측하고 있는데, 이것이 5~6%로 떨어지면 어떻게 될 것인지가 세계 경제의 관심사다.

### 글로벌 경기침체 장기화 될 것

미국은 세계에서 가장 큰 경제인데, 아직도 저성장, 실업, 재정적자에 시달리고 있다. 미국경제는 바닥을 벗어난다 해도 상당기간 1~2%의 저성장을 유지할 것이다. 미국 대공황이 1929년에 일어났는데, 이것을 벗어나는데 무려 13년이 걸렸다. 지금도 마찬가지로 경제상황이 금세 호전되리라고는 보지 않는다.

현재의 글로벌 경기침체는 장기화될 전망이다. 이것을 브로큰 윙(broken wing)이라고 하는데, 07~08년부터 세계경제는 계속 내리막을 걷다가 작년에 바닥을 치고 조금 올라왔다. 그러나 이것은 많은 경기부양책을 써서 단기적으로 반등한 것이다. 금융시장은 올해도 여전히 불안하다가 2011년 다시 한 번 바닥을 치고 점진적으로 올라갈 것으로 보인다.

미국은 지금 세계 유일의 슈퍼파워에서 그 영향력이 점점 약해져서 말발이 안 먹히고, 중국은 새로운 역할을 해야 하는데 책임을 안 지려는 상황으로 가고 있다. 반대로 신흥국은 발언권이 점점 커지고 있다. 올해 한국이 G20정상회의를 개최한다는 것은 세계적인 글로벌 리더십의 공백을 앞으로 발전하는 국가들이 조금씩 메워간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한편 미국은 한국이 중

국과 가까워지는 것을 걱정하고 있다. 이럴 경우 한국이 어떻게 대처할지도 대비해야 한다.

### '원 아시아' 구성으로 경제협력 해야

노벨 경제학상을 받은 조셉 스트글리츠 컬럼비아대 교수는 "기존의 경제학은 틀렸다. 경제학 교과서는 다 집어 던져버리고 우리가 새롭게 경제학을 쓰자. 보이지 않는 손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이야기를 했다. 정부가 더 큰 역할을 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지난 10년 동안 정부보다 기업이 더 큰 역할을 해야 한다는 사회적 분위기가 있었지만 이번 금융위기를 거치면서 관점이 바뀌고 있다.

금융위기로 인해 글로벌 패러다임이 바뀌면서 우리는 대변혁의 시기를 겪고 있다. 이러한 때 '원 아시아'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싶다. 세계는 점점 경제적, 정치적 블록화가 가속화되고 있다. 유럽연합(EU), 남동유럽지역협력협의회(RCC),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 등이 경제력 협력관계를 맺고 있다. 그런데 유일하게 블록이 없는 지역이 한중일이다.

아시아는 이미 세계 3대 경제축으로 성장했다. 인구도 EU가 5억 명, 미국이 4억 명이고, 아시아에는 무려 32억 명이 살고 있다. 총 GDP 규모도 EU 18조, 미국 16조, 아시아가 14조이다. 아시아는 97~98년 경제위기를 겪었기 때문에 지난 10년간 많은 구조조정을 했다. 우리나라도 경제위기 10년 후 상당히 강해졌다.

원 아시아를 위한 많은 노력이 이미 진행되고 있다. 2009년도에 우리는 신아시아 외교구상을 발표했고, 하토야마 총리는 우애외교라는 단어를 써서 동아시아공동체를 발표했다. 호주는 아시아 태평양공동체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 결국 아시아 역내 경제통합을 통해서 하나의 아시아를 만들고 더 나아가 문화와 정치체계를 통합하는 원 아시아를 구상해야 한다.

우리는 그동안 서양화라는 단어 속에서 살아왔다. 하지만 이제는 아시아화(Asianization)를 확산시켜야 한다. 그 전에 아시아인들이 준비가 되었는지, 서양에 비해 무엇을 자랑스럽게 내놓을 수 있는지 깊이 생각해봐야 한다. 한국 군대도 아프가니스탄 파병과 아이티 지원 등을 통해 세계로 나아가야 한다. 작년 11월 매경 세계지식포럼에 참석한 조지 부시 전 대통령은 비관적인 세계경제를 살릴 열쇠가 원 아시아라는 이야기를 하기도 했다.

### 아시아통합 왜 늦어지나

아시아의 통합이 왜 늦어지기만 할까? 일단 경제력의 격차가 심하다. 여기에 통합을 하겠다는 의지도 부족하다. 그리고 아시아에는 다양한 정치체제가 있다. 일본에는 천황이 있고, 태국과 브루나이는 왕정이다. 미얀마는 아직도 군사독재이고, 중국은 공산주의다. 이런 다양한 정치체제를 앞으로 어떻게 수용할 것인지가 가장 큰 문제이다. 이러한 배경 속에 앞으로 풀어야할 과제들이 있다. 우선 한중일이 FTA를 맺어야 한다. 동북아의 안보를 위해서 북한 문제

도 해결해야 한다. 그리고 서로의 문화를 존중하는 아시아의 파트너십이 필요하다.

원 아시아는 하루아침에 되는 것이 아니다. 이를 위해 시장 주도의 통합이 선행되어야 한다. 기업이 시장 주도로 통합해서 종국에는 단일화폐로 가는 것이다. 단일화폐가 이루어지면 환율변동에 대한 걱정이 사라진다. 그렇게 경제통합을 이룬 후 정치통합으로 발전하는 것, 이렇게 어려운 길이 원 아시아 구상이다. 한국은 원 아시아와 미국, 유럽을 이어줄 고리 역할을 할 수 있다. 미국과 EU 모두 FTA를 체결한 아시아의 유일한 국가이기 때문이다.

### 2010 코리아 모멘텀

모멘텀이라는 것은 힘, 특히 움직이는 힘을 말한다. 2010년 한국을 움직이는 힘은 G20정상회의 의장국이다. 이런 아젠다를 가지고 세계경제 질서를 바로잡아보자는 것이 올해 한국을 움직일 수 있는 힘이다. 그리고 6월에 있을 지방선거, 그 이후의 개헌논의 등이 한국을 움직이는 모멘텀이 될 것이다.

멋진 서핑을 하기 위해서는 해변으로부터 수십 수백 미터를 나아가 어마어마한 파도를 만나야 한다. 그리고 좋은 파도가 올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 그러나 높은 파도가 올 때까지 기다리면 늦는다. 이제는 기다리지 말고 우리 스스로 파도를 만들어 기업과 조직을 움직여야 한다.

육군은 그동안 성공적인 역사를 써왔다. 이제는 지난날의 성공적인 신화를 바탕으로 새로운 물살을 타야 한다. 물살이 없다면 스스로 만드는 용기를 가지는 것이 우리가 그리고 육군이 할 일이다.

**장대환 회장**

미국 로체스터대 정치학과를 졸업하고, 조시워싱턴대 국제정치학 석사, 뉴욕대 국제경영학 석.박사 학위를 받았다. 매일경제신문, 매경TV 사장을 거쳐 2003년 회장에 취임했다. 92년 세계경제포럼 차세대 지도자에 선정되었으며, 02년 국무총리 서리에 임명된 바 있다. 현재 한국신문협회 회장,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위원, 세종문화회관 이사장 등으로도 활동 중이다.





● 올해도 아카데미 들으러 오세요 ●

# Local Government NEWS

### 70여 개 지자체와 함께 아카데미 본격 가동

인간개발연구원은 지난 1월 6일 정선군의 '아리아리 정선아카데미'를 시작으로 상주시 '상주아카데미', 진안군 '마이학당' 등 전국 70여 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하는 2010년 지방자치아카데미를 개강했다. 국내 최다 조찬 세미나 기록을 가지고 있는 인간개발연구원 '인간개발경영자연구회'가 1995년 전남 장성군으로 옮겨가 처음 개설된 장성아카데미는 지자체 혁신의 대명사로 알려져 왔다.

특히 '21세기 희망의 경기포럼', 충북도의 '청풍 아카데미', 대구의 '달성 아카데미' 등 전국 180여 개 자치단체에서 유사 강좌가 개설되며 '아카데미 열풍'을 불러왔다. 지역주민이면 누구나 자율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지방자치 아카데미는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와 명사를 통해 2010년 한 해도 각계각층의 명사를 초빙하여 신지식과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 강릉 저탄소 녹색도시 조성 후속조치 본격 추진

전국 유일의 저탄소 녹색도시로 선정된 강원도 강릉시가 녹색도시 시범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2월부터 후속조치 계획을 본격 추진하고 있다. 시는 지난 2월 사업의 실효성 확보와 조속한 추진을 위해 시범지구 전체에 대한 기본 및 개발계획 수립용역을 발주하는 한편 도시기본계획, 공원계획 등 상위계획 반영을 위한 검토를 병행 추진하고 있다. 또한 녹색 아카데미 등 녹색생활 교육 및 홍보 프로그램 확산과 그린스타트 지역네트워크, 제일강산21실천협의회, 쓰레기 제로화 강릉시민 실천운동본부 등 지역단체와 연계해 녹색생활실천을 범시민운동으로 적극 전개해 나갈 계획을 세웠다.

### 진주실크박람회 2일 진주시청서 개막

'2010 춘계 진주실크박람회'가 지난 2월 2일 오전 11시 진주시청 전시관에서 성황리에 개막되었다. 박람회는 다양한 실크제품이 전시돼 시민과 외래 관람객들에게 진주 실크의 우수성을 홍보하고 볼거리를 제공하는 축제의 장으로 진행되었다. 박람회 기간 진주시청 1, 2층과 시민홀에서는 기업관, 패션관, 홈인테리어관, 실크홍보관 등이 운영되었고, 패션쇼와 바이어 초청 상담회 · 세미나, 장인시연 및 체험 등이 펼쳐져 관심을 모았다. 이 밖에도 시민노래자랑 등의 이벤트도 함께 진행돼 축제의 분위기를 띄웠다.

### 상주시, 자전거 타고 장날 구경하세요

자전거 도시 경북 상주시가 지난 2월 5일 전통장인 상주장날을 자전거 이용의 날로 지정, 자전거 타기 활성화에 나섰다. 상주시에 따르면 3월부터 매월 6차례(2, 7, 12, 17, 22, 27일) 열리는 상주장날을 범시민 자전거이용의 날로 지정, 운영한다. 이번 조치는 그동안 상주시가 펼친 자전거타기운동이 무난히 정착됐다는 판단에 따라 정부의 녹색성장 견인과 함께 전 시민이 함께 하는 범시민운동으로의 생활자전거타기 붐을 선도하기 위해 추진되었다. 그동안 시는 지난 2007년 4월부터 차량 2부제 날과 시민아카데미가 열리는 매주 목요일을 공직자 자전거이용의 날로 지정, 출퇴근을 하며 공무원이 자전거 타기를 선도한 바 있다.

# 공자의 말

글 · 정목일 수필가, (사)한국수필가협회 이사장

지금 중국은 고대의 성인(聖人) '공자'를 중국 정신의 한가운데에 세우려 한다. 미국 영화 〈아바타〉가 사상 최고 흥행 수익을 올리자, 영화 〈공자—춘추전국시대〉를 제작하여 개봉했다. 〈아바타〉가 미래 세계를 그린 데 반해, 〈공자—춘추전국시대〉는 고대를 차용했다. 중국이 경제성장에만 매달렸던 인상에서 벗어나 '공자'를 통해서 정신문화의 부활을 보여주려는 속뜻이다. 국책영화라고 할 수 있는 〈공자—춘추전국시대〉를 통해 문화대국의 모습을 과시하려 한다.

"군자는 덕을 생각하고 소인은 돈을 생각하며, 군자는 법을 두려워하고 소인은 은혜 받기를 생각한다."

君子는 懷德하고 小人은 懷土하며, 君子는 懷刑하고 小人은 懷惠하니라.(里仁 十一)

공자의 말은 대단히 도덕적이다. 어느 쪽으로도 휩쓸리지 않고 중용을 택한다. 참신하다기보다는 보편성과 안정성을 추구한다. 그의 말은 평범함 속에 오묘함이 있다.

예수의 말은 신성과 계시가 있어서 가슴 설레는 감동과 환희를 주지만, 공자의 말은 인간이 살아가는 이치와 지혜를 주는 인간다움이 있다. 예수는 사후의 세계를 얘기하고 '하늘나라'를 알려주지만, 공자는 사람답게 살아가는 법과 이치를 제시한다. 공자는 초인적 인간이 되려 하지 않았다.

유교 문화권에 살려면 공자의 말에서 벗어나기 어렵다. 어디 가도 공자의 말이 널려 있어서 공자의 영향권에 사는 듯 느껴진다. 말이건 글이건 으레 '공자 가라사대', '공자 왈'로 시작되는 인용구가 들어가야 신뢰를 얻게 된다. '공자 가라사대'를 먼저 언급해야 검증을 거친 듯한 인상을 준다.

논어의 얘기들은 인간이 처할 수 있는 현실의 얘기이며 실천에 옮겨야 할 덕목들이다. 삶 속에 직면하는 문제들이고, 뻔히 알면서도 실천하기 어려운 것이기에 싫어지기까지 하는 성가신 말이다.

중국 7대 황제, 한무제는 유교를 통치이념으로 정했다. 그가 유교를 택한 것은 중국 역사를 설명할 수 있는 논리체계를 갖고 있었기 때문이다. 유교만이 중국이란 무엇이며 중국인은 어떻게 살고 행동해야 한다는 것을 구체적으로 가르칠 수 있다고 본 것이다. 중국과 중국인 정체성을 가르칠 수 있는 논리를 유교만이 갖고 있음을 알았기 때문이다. 노장사상은 심오하기는 하지만 이상에 흐르고, 구체적인 삶의 지침이 없다. 유교는 삼강오륜을 통하여 질서와 윤리의 강령을 세우고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에 대한 보편적인 방법을 제시하고 있다. 이것은 비단 중국인만이 아닌 사회의 규범과 삶의 지침이 될 수 있는 보편성을 확보하고 있었기 때문에 동양의 여러 나라로 번져갈 수 있었다.

예(禮)를 중심으로 한 공자의 유가사상 성립은 주목할 만하다. 공자는 부자(父子)와 형제를 축으로 하는 가족도덕을 기본으로 하고 사회적 규율로 예를 중시했다. 또한 덕치주의에 의한 정치론을 전개했고 군신(君臣)간의 의(義)를 강조했다. 그는 인(仁)의 사상을 확립하여 유교의 기본원리로 삼았다.

동양권에서 절대적인 사상과 삶의 지침이 된 공자의 말. 그 가르침은 현대에도 유효성을 남기고 있다. 현실과 삶을 바탕으로 한 보편성의 논리에 근거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왕조시대와 농경사회가 아닌 현대에선 현실과 삶의 모습이 춘추전국시대와는 현저한 변화를 가져왔다. 삼강오륜은 시대에 뒤떨어진 윤리규범이 되었다.

이제 공자의 말을 넘어서야 한다. 폐기하거나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니다. 무조건 '지당하다'고 해선 안 되며, 토론과 개선과 창조가 요구된다. 현대인에게 맞는 공동체 삶의 윤리나 도덕이 필요하다. 시대 변화에 따른 새로운 모델과 미래에 대한 예측과 대응력을 가져야 한다. KHDI





인간개발연구원

# 회원가입 안내

## ■ 회원자격

본 연구원의 이념과 정신에 동의하는 企業體 및 團體의 任員 또는 전문직업인, 사회적 여론 주도층(Opinion Leader) 또는 회원 1인 이상의 추천을 받은 자

## ■ 회원서비스 안내

### 1. 온라인 서비스

- **이메일 서비스** (경영자연구회 후기, 회원칼럼, 회원소식, KHDI 웹진)
- **KHDI 라이브러리** (강연동영상, 녹취록 다운로드)
- **홈페이지** (회원사 수상 및 경조사, 신제품 등 회원동정 게재 및 홍보)

### 2. 오프라인 서비스

- **인간개발경영자연구회 조찬세미나** 정치 · 경제 · 경영 · 사회 · 문화 등 다양한 장르를 넘나드는 경영지식을 제공하는 연구모임(참가비 회원가 우대 및 면제, 강연CD, 녹취록 매주 우송, 경영도서 제공)
- **CEO SUMMER FORUM 참가비 할인** 휴양지에서 경영자 · 가족 · 초청강사가 함께 학습을 통하여 경영정보와 깊은 대화를 나누는 친교의 장
- **회원커뮤니티 활동**
  - 친목과 교류를 위한 이종기업 협력 동우회 (이종1그룹, 다락회, 화목회, 인목회)
  - 골프클럽 (인경회)
  - 차세대 경영자들의 모임 (Yong ceo forum)
  - 중국의 역사, 경제, 정치, 문화 학습모임 (차이나클럽)
  - 회원들의 책글쓰기를 돕는 모임 (책쓰기를 위한 에세이클럽)
- **독서경영 오픈세미나 무료 유료 참석**(저자와의 특별한 만남)
- **국·내외 시찰 Program** 국내외 선진지 견학을 통한 벤치마킹
- **회원친선행사** 찾아가는CEO교실, 회원사방문, 지방자치 팸투어, 공연단체관람, 송년파티 등
- **정기 간행물 제공** (격월간 좋은사람, 좋은세상)
- **기업 교육컨설팅** 임직원 교육 및 연수 프로그램 기획, 명사섭외, 기업홍보 협조 외

## ■ 회원이 되시려면

회원가입신청서 제출 → 심사 → 연회비납부 → 회원활동

## ■ 연회비 안내

| 구 분 | 연회비 |
|---|---|
| 특 별 법 인 | 500만원 |
| 법 인 회 원 | 300만원 |
| 세미나회원 | 240만원 |
| 개 인 회 원 | 100만원 |
| 오디오회원 | 52만원 |
| 후 원 회 원 | 후원금 300만원 이상 법인회원 예우 |
| 나 눔 회 원 | 강연, 재능 기부 시 개인회원 예우 |

| 서비스 구분 | 서비스 항목 | 특별법인 | 법인회원 | 세미나회원 | 개인회원 | 오디오회원 |
|---|---|---|---|---|---|---|
| 오프라인 | 회원혜택 적용 인원수 | 10인 | 5인 | 1인 | 1인 | 1인 |
| | 인간개발경영자연구회 조찬세미나 참가비 (매주목요일 개최) | 면제/2인 | 면제/1인 | 면제/1인 | 회원가 | 비회원가 |
| | 회원커뮤니티 가입자격 | ○ | ○ | ○ | ○ | |
| | 회원친선행사 (무료,유료) | ○ | ○ | ○ | ○ | |
| | 기업소식 및 동정 홍보 (매거진,이메일,팩스,유인물배포) | ○ | ○ | ○ | ○ | |
| | CEO SUMMER FORUM 참가비 할인 | ○ | ○ | ○ | ○ | |
| | 국 · 내외 산업시찰 참가비 할인 | ○ | ○ | ○ | ○ | |
| | 독서경영 오픈세미나(무료,유료) | ○ | ○ | ○ | ○ | |
| | 조찬세미나 강연CD 매주발송 정기 간행물 및 도서 제공 | 5개 | 3개 | 1개 | 1개 | 1개 (도서제외) |
| | | 등록임원에게 우송(연2회) | | 도서는 세미나 참가시 제공 | | |
| | 교육컨설팅 (명사섭외,연수프로그램기획 등) | ○ | ○ | ○ | ○ | |
| 온라인 | KHDI 라이브러리 아이디 부여 (동영상, 녹취록 제공) | ○ | ○ | ○ | ○ | |
| | 강연후기 이메일 서비스 | ○ | ○ | ○ | ○ | ○ |

단어만 외운다고 영어회화가 될까요?
오토커로 최단기간 단어암기는 기본!
한달이면 영어회화까지 OK!

# 영어독립 오토커

세계 최초 특허 출원
말 못하는 단어암기, 벙어리영어는 가라!
자동으로 말이 되는
오토커로 오라!

newedu.co.kr autalker.net 2010년 3월

## 인간개발연구원과 영어학습기 최강자 오토커, 100만 글로벌리더 양성하여 대한민국 영어독립 선언!

### 21세기는 영토강국이 아니라 영어강국이 진짜 강국!

21세기는 IT,BT,NT를 넘어 인간의 시대로 PT(People Technology)가 절실히 요구된다. 특히 21세기 글로벌리더 양성에는 인성교육과 더불어 다언어, 특히 영어구사능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에 인간개발연구원(회장 장만기)과 ㈜뉴월드영상에듀-오토커(대표이사 홍동의)는 인재육성의 시대적 과제를 통찰하고 백만 인재를 선발, 지원하여 한국의 미래를 책임질 글로벌리더로 키우겠다고 밝혔다. 오토커는 자동반복, 자동기억, 저절로 말이 되는 원리라 말하기, 듣기 같은 회화에 강하다. 교과부가 2010년 정책보고에서 밝혔듯 앞으로의 수능은 듣기, 말하기 등 회화중심으로 바뀐다. 즉 문법, 독해 중심의 책상머리 영어가 아니라 정말 영어가 되는 오토커의 시대가 열린다는 것. 특히 올해는 삼일절 90주년을 넘기는 뜻깊은 시점이라 지금까지의 잘못된 영어교육과 과다한 사교육비로부터의 독립 선언은 더욱 큰 결단으로 여겨진다.

장만기 회장

## 교과부, 초중고 · 대입수능영어를 듣기, 말하기, 회화중심으로 대폭 교체!

### 단어암기는 기본! 회화까지 강한 오토커로 신학기 학생, 학부모 관심 및 문의 폭증

현재 중학교 2학년이 치르는 대학수능에서는 외국어영역의 듣기평가 비중이 50%로 늘어나고, 초중고교의 영어수업도 회화중심으로 강화된다.

또한 초등학교 3, 4학년의 영어수업이 주당 1시간에서 2시간으로 늘어난다. 중고교에서도 영어수업 가운데 주당 1시간 이상은 회화수업을 하고, 수준별 이동수업도 확대한다.

2011년부터는 초등학교 5, 6학년의 영어수업시간도 늘어난다. 수능 외국어영역의 듣기평가가 현재 17문항(34%)에서 2014학년도부터 25문항(50%)으로 늘어난다.

이는 영어교육의 패러다임을 문법, 독해 위주에서 듣기, 말하기 위주로 바꾸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최근 각 가정과 학교마다 오토커 열풍이 불고 있다. 자동반복, 자동기억, 저절로 말이 되는 원리라 특히 회화에 강한것이 큰 장점이다.

또한 오토커는 교과부 인증 벤처기술연구소의 특허기술로 제작되어 이번 교과부의 영어교육방침에도 잘 맞아 떨어질 것으로 보인다.

다음은 오토커가 공급설치된 전국의 학교들이며 이는 나날이 늘어나고 있다고 한다.

- 학생, 직장인들 **영어 스트레스에서 해방!**
- 학부모 과다한 **영어사교육비에서 해방!**
- 원어민강사, 해외연수 등 **외화낭비 해방!**
- 불법유학, 기러기아빠 등 **사회문제 해방!**

〈서울〉장충중 〈전주〉신성초, 문학초 〈하동〉진교초 〈청송〉파천초 〈강원고성〉영오초, 개천초 〈영덕〉강구초, 지풍중 〈충남〉내산초 〈예천〉김천초 〈안동〉온혜초, 갈안초, 영호초, 임하초, 남선초, 서선초, 영남초, 풍산초, 강남초, 용상초, 풍서초, 와룡초, 서후초 〈상주〉백원초 〈광주〉보성 남초 〈동해〉남호초 〈부산〉월내초, 중앙여중, 연동초, 산동초, 학사초, 한독문화여중, 부산가야여중, 재송초, 부산카톨릭대, 해강중, 센텀초, 사직초 〈대전〉대전중 〈영양〉석보초 〈경남 고성〉삼리초 · · · · · · · · · · · · · ·

자동으로 **반복**되고, 자동으로 **기억**되어,
저절로 **말**이 되는 **오토커**(Autalker)

▣ 학원, 과외해도 안되고, 기초없고, 단어암기 힘든 학생 ▣ 특목고준비생, 수능고득점, 토익만점 원하시는 분
▣ 해외여행, 출장, 이민준비, 급하게 회화 필요하신 분 ▣ 유치원, 초등학교 등 영어교육이 필요한 각종 교육기관

- SSAT(미국사립고교 입학시험) 특목고준비생 최적과정, SAT(미국대학입학 자격시험) 수능만점 및 미국유학 최적과정
- 아메리카 생활영어 (상황별 영어회화 헐리우드 현지 올로케 촬영) • Live공연 동영상팝송 (즐겁게 팝송만 공부해도 영어회화 술술~)
- 영한, 한영, 영영, 일한, 한일, 중한, 일본어, 국어, 한자읽기 등 총 120만 단어, 육성발음 지원
- 언어교육의 백과사전 (중학필수 1200단어, 고등필수 1600단어) • 문장반복, 구절반복 영어학습 (유치, 초, 중, 고 ,성인)
- 비즈니스영어, 여행회화, 일상회화, 토익 등 상황별 다양한 회화 총망라 지원

2010년 최신형

온가족을 위한 **가정용 오토커**

유치원, 초·중·고, 대학생, 직장인, 일반인 등 전과정- 단계별, 수준별, 최고 퀄리티의 콘텐츠로 완벽구성

기초부터 Free Talking까지 파닉스, 단어, 숙어, 문장, 연음 원리, L/C, 영어동화, 영어동요, 초등학교 교과서, 초중고 단어/문법, 회화, SSAT, SAT 팝송, Speaking, TOEIC 전과정 집대성

직장인을 위한 **휴대용 오토커**

- 4.3inch Wide : 누르면 바로 반응하는 초감도 세 터치스크린
- DMB : KBS, SBS, MBC공중파 등 100개 채널시청가능
- Portable : 휴대하기 간편하게 한손에 쏘옥~
- 자기발음교정기능 & 보이스레코더기능
- 보다 생생한 네이티브 스피커
- MP3,동영상 기능, MP3와 사진 동시에 이용가능, 중국어회화, 일본어회화
- FM라디오 주파수 Auto Scan FM방송녹음하기

조달청 국가조달청공급제품 ISO 9001:2000 인증번호 K1855.08

대한민국 외국어교육 산업대상 수상 / 대한민국 혁신 기업경영 대상 / 이노베이션기업& 브랜드 대상 / Telly Awards 최고 권위의 교육 비디오상 수상 / Aurora Awards 연출상, 교육상 금상 수상

보고 듣는 즉시 말이 술술 나오는-

전국지사 개설문의 **1599-8205** 구입 및 문의 전화 **1599-0405** Autalker

www.lottehotel.com

LOTTE HOTELS & RESORTS

세상이 당신을 존경하는 방법, 롯데호텔 - 트레비클럽
언제 어디서나 대우받으셔야 하기에 트레비클럽이 당신을 예우합니다.

트레비클럽 특전

전국 모든 롯데호텔에서 바&레스토랑 10~33%, 객실 30~35%, 수영장, 사우나, 실내골프장 20~40%의 할인 혜택을 제공합니다.
문의 02.317.7231~3